登錄番號라－137號
【1】月刊 1988.11.9第3種郵便物(나)級認可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1992년 1월 1일 제166호

同窓會 指標

•參與
•協力
•榮光

·본회는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大學校 同窓會報

發行兼編輯人 崔 主 鎬
印刷人 崔 瑞 泳
發 行 所
서울大學校 同窓會
郵便番號 121－040
서울特別市 麻浦區 桃花洞 18－2
電 話 : 702－2233～5. 717－8536～7.
F A X : 703－0755.
銀行지로番號 : 7500875
對 替 口 座 : 010017－31－0621565

하나의 겨레, 하나의 江山

올해에는 이 땅에도 統一이 南北관계 진전에 새 章을 열「合議書」도 채택된 만큼, 새해에는 이 땅에도 分斷의 벽이 허물어져 離散의 아픔이 말끔히 치유되길 간절히 기원한다. (사진제공 : 모교 社會大 地理學科)

冠岳春秋

南風의 봄 北地에도

세월의 記帳은 새로와졌다. 1992년의 새 아침·새봄! 밝아온 햇살이 인간과 시간사이의 축복을 따사롭게 유도한다. 그 빛의 밝음을 안으려는 祝禱와 德談과 한잔의 순배가 새해의 映像인양, 마냥 부드럽고 순수하고 아름답기만 하다.

「하이네」의 한 句節이 생각난다. 『세상은 아름답고/하늘은 푸르고/산들바람 고요히 불어오며/들판의 꽃들은 손을 흔들고/(중략) 어느 곳을 보아도 웃는 사람의 얼굴/…』 詩情이 살아나는 이 歲時 한철처럼 웃음이 충만하고 평화가 만발하는 세상이면 그 얼마나 좋을까. 모든 희망이 봉오리를 열고 꽃피어 열매마저 튼실해진다면 그 기쁨과 보람인들 또한 어떠할까. 여기 壬申의 한 해를 바라보는 19만 우리 同門들의 念願과 7천만 온 겨레의 뜻 그리고 3천리 이 江山의 情趣가 「하나로」 歸納되는 新正의 藝術과 脈搏을 실감케 한다.

지금은 南北으로 갈라졌지만 원래의 우리는 「하나」였다. 땅도 그렇고 핏줄도 마음도 그렇다. 얼굴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삶과 역사와 文化 또한 한줄기였다. 운명의 사슬이 하나로 이어졌기에 倭亂과 胡亂의 시련을 함께 이겨냈고 비통했던 日帝 강점하의 고난 또한 끈질긴 抗日투쟁으로 멀리 물리쳤다.

한 民族의 地熱이 뜨거웠던데서 統一新羅의 옛 光輝는 찬연했었고 高麗의 문화, 朝鮮朝의 學藝 역시 한 시대의 빛을 발하기에 足하였다. 이런 史實·史論과 함께 흔히 떠오르는 이름들인들 얼마나 자랑스럽고 정다웠던가. 花郎들을 비롯하여 尹瓘 李순신 乙支 문덕 姜감찬 權률등 武人들의 애국충절도 그러려니와 義妓 論介의 순절이나 民話로 전해지는 심청의 효성, 춘향의 절개 또한 우리네 가슴에 한결같이 머무는 가화들이다. 그위에 보태지는 安중근과 尹봉길의 의거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민족정기의 한 寶石이 아닐 수 없다.

영원한 나라와 겨레를 노래 부르게 한 名山大湖나 淸流名江은 또 그 얼마나 우리의 氣像과 정신을 둥글고 고상하게 이끌었는가.

北의 白頭와 天池·南의 漢拏와 白鹿潭·鴨綠·豆滿과 漢江·洛東은 그 대표적인 것이다. 智異山·錦江에다 妙香山·大同江·金剛과 雪岳의 連峰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우리 血緣들 심성의 따사로운 가슴이며 젖줄이었다. 「백두산 뻗어내려 半島 삼천리」라 하였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나라의 무궁함을 조석으로 축원하며 살아오고 살아가는 우리들이다.

비록 땅은 비좁지만 天下第一의 이 강산은 글자 그대로 風流爛漫 한는 겨레의 멋이 서리게도 하였다. 가을 길에 취했던 韓何雲의 國土遍歷, 素月의 진달래, 목화꽃·모밀꽃을 잊지 못한 盧天命의 고향등은 風物詩가 창조한 이땅의 음악이다. 江心에 아롱진 細雨淸江의 맑음이나 煙波江上의 풍정이 이름높은 書藝大家들의 山水墨畫를 그리게 하였고 그 기슭 絶景에 어울린 亭子나 深山유곡의 名刹은 名賢碩學과 高僧들의 품성을 깊숙히 다듬게 한 것이었다.

이런 想念선상에서 栗谷의 花石亭이 떠오르고 陜川의 海印寺, 求禮의 華嚴寺가 다가선다. 북녘땅 그 강변의 浮碧樓와 妙香의 보현사, 鳳山의 성불사는 멀어도 韓國人들 머리에서 지워지질 않는다. 모두가 떨어질 수 없고 끊어질 수 없는 우리들의 공동문화재며 精神美의 英華인 것이다. 그로부터 「天使의 스피치」라는 우리네의 노래는 태어났고 「天地의 마음」이자 「藝術의 女王」인 詩도 읊어졌다. 시대의 振動을 말하는 歷史의 맑은 기록과 光明을 찾으려는 미래의 청청한 설계를 갖게도 된다.

이제 안팎의 運勢는 새해의 우리 앞길에 7색의 무지개를 드리우고 있다. 동시에 選擧 大事와 경제난국타개에 착오를 빚지말라는 附箋도 따라 있다. 서로가 겯고 틀던 南北이 잘 하면 和解·協力의 새 관계를 맺고 어둠속에 잃었던 北韓땅에도 南門의 봄바람은 스며갈성 싶다. 횃불은 바야흐로 統一새時代의 前程을 신호하며 自由와 平和로 훈련된 모든 世代들의 嚮導를 채근하고 있다. 하나의 겨레·하나의 강산을 이루기 위해서다.

그 선두의 깃발은 民族最高의 大學을 나온 우리 서울大人들에 의하여 세차게 펄럭여야 하지 않을까. 부디 모든 동문들에게 새로운 活力과 淸福과 幸運 있으시기를….

"1백億 科學研究基金 조성 元年으로"

新年辭

동창회장 崔主鎬

國內外的으로 커다란 변화의 물결이 일었던 91年을 보내고 새롭게 맞이하는 壬申年의 劈頭에서 19만 서울大人께 삼가 인사올립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오늘날 세계는 이데올로기의 迷妄을 벗어 던지고 바야흐로 自由經濟질서에 근거한 自國利益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시대로 접어 들었습니다.

앨빈 토플러가 豫見했던 「제3의 물결」은 이미 우리의 현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국제질서 아래서 통용돼온 思考와 處身으로는 앞으로 전개될 科學技術경쟁에서 낙오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서울大人이 짊어져야 할 최우선의 과제는 바로 새로운 국제질서에서 獨導的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가장 우수한 人材들이 모인 우리의 母校 서울大學校는 명실상부한 大韓民國 과학기술의 產室이 되어야 하며, 이것만이 우리 民族에게 보다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것임을 우리 同門들은 깊이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새로이 밝아온 92年을 맞아 19만 서울大人은 그 어느때보다 각별한 決意로써 더욱 발전하는 同窓會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事業目標를 크게 둘로 나누어 첫째 母校支援 확대, 둘째 보다 공고한 同窓會組織을 구축하는데 두었습니다.

◇崔 회 장

우선 母校支援에 있어서 이미 조성된 10億 장학기금은 後輩들의 奬學金을 보다 확대하는데 사용하고, 이와는 별도로 1百億원 정도의 科學硏究 基金을 조성하여 노벨賞에 버금가는 韓國의 科學賞을 만들 계획입니다. 바로 이것만이 落後되고 劣惡한 국내 과학기술을 回生시킬 수 있는 길이며, 우리 동문들이 母校와 國家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이라 확신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숱한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이제 더 이상 현실에 安住하고 있을 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同門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리라 여겨집니다. 이를 위해 절실한 것은 19만 서울大人이 하나가 되어 뭉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의 同窓會가 同門 상호간의 親睦을 도모하고, 母校의 발전을 지원하는데 주력해 왔다면 앞으로는 과감하게 國家와 民族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해야 하겠습니다.

모쪼록 새해에는 우리 母校와 同窓會의 더 큰 발전과 나아가서는 國內 科學技術 발전에 있어 획기적인 주춧돌을 심는 元年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저들 同門 여러분의 協調와 健勝을 바랍니다.

壬申新年頌

——蘭臺 李應百

새해의 햇살 퍼니 冠岳靈峰 눈부시다.
뭉게구름 다 걷히고 파랗게 열린 하늘
그 하늘 떠 받들고서 이 한해를 살아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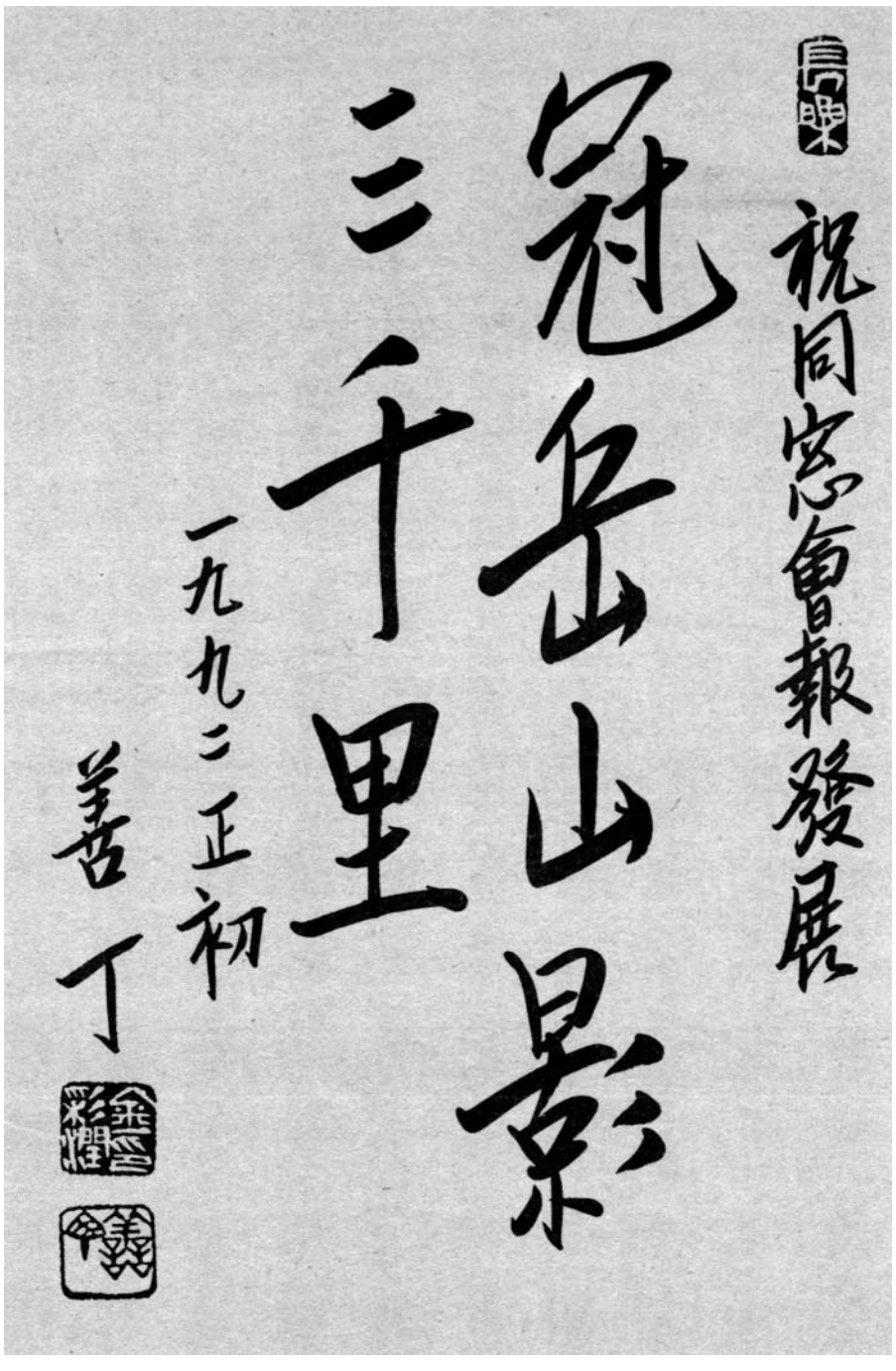
뛰어나는 俊才들이 나라의 棟樑으로
무던히들 애를 써도 안 펴이는 나라 형편
그래도 救國의 손길 늦출 수는 없잖은가.

붉덩물 가로막는 어리석음 犯치 말고
勤勉誠實 節儉 풍조 떨치어 일으키어
온 국민 다시 뛰자는 마음을 심어 주자.

어버이 잘 섬기고 웃어른 恭敬하는
傳來의 美風良俗 흐뭇하게 되살림이
정치며 경제보다도 더욱 根本이려니.

누가 뭐라 해도 正義의 柱礎 다져
푸른 하늘 마음 삼아 나라와 人類 위해
弘益의 理念을 펼쳐 새 時代를 열과저.

〈49년 師大卒·모교 名譽敎授·本報 편집위원〉



——金彩潤 〈56년 文理大卒·모교 大學院長〉

謹賀新年

서울大學校 同窓會

會長 崔主鎬
常任副會長 張翼龍
副會長 金道昶
" 河永基
" 金相廈
" 具平會
" 白樂晥
" 金在淳
" 李聖秀
" 姜信浩
" 高在清
" 金善弘
" 李奭熙
" 趙南煜
" 鄭宗澤
" 李埈鎔
" 李洙彬
" 李台燮
" 朴容晟
" 鄭夢準
" 李弼善
監事 嚴宗鎭

올 冠岳會豫算 3억9천만원

奬學金·교수 硏究費 15% 증액

재단법인 冠岳會(이사장 崔主鎬)는 지난 12월12일 오후7시 리베라호텔에서 제50차 理事會를 열고 1992년도 사업계획및 수지예산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했다.(별표참조)

이날 승인된 예산은 크게 △目的事業부문과 △收益事業부문으로 구분해서 편성됐다.

먼저 奬學金및 敎授硏究費 지급을 위한 목적사업부문예산을 보면 △수입면에서 10억장학기금의 당성으로 수입이자가 지난해보다 약4천여만원이 늘어나 1억2천7백여만원으로 책정되었다. 반면 △지출면에서는 장학금및 교수연구비가 지난해보다 15%늘어난 1억1천5백만원, 기타 회의비, 급여, 사무비등으로 2천여만원등 총 1억3천5백여만원이다. 이에 따라 목적사업부문 예산에서는 약 7백여만원의 적자가 예상되는데 이는 수익사업부문 혹은 동창회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收益事業부문 예산을 보면 △수입면에서 會館 임대수입 1억6천만원, 維持수입(관리비) 1억4백만원등 총 2억6천5백만원으로 책정되었다. 반면 △지출면에서는 회관관리에 따른 人件費 4천만원, 水道광열비 5천3백만원, 稅金과公課 1천8백만원, 감가상각비 6천8백만원등 총 2억3천7백만원으로 수익사업부문에서는 약 2천8백여만원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따라 관악회의 92년도 목적사업부문과 수익사업부문을 합친 총 예산은 수입 3억9천3백28만8천3백64원, 지출 3억7천2백42만4천9백59원으로 약 2천여만원의 흑자로 편성되었다.

한편 동창회 사업계획 및 예산은 2월 상임이사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冠岳會 새해 豫算

(項) 目	'91	'92
1. (營業收益)	(233,706,000)	(265,362,000)
賃貸收入	145,020,000	160,548,000
維持收入	88,686,000	104,814,000
2. (營業費用)	(344,965,657)	(372,424,959)
給與	46,200,000	51,720,000
賞與金	15,400,000	17,240,000
福利厚生費	4,418,400	4,427,040
退職金當	5,134,000	5,746,660
諸手當	2,400,000	2,400,000
旅費와交通費	1,200,000	600,000
圖書通信費	2,184,000	2,304,000
水道光熱費	47,410,640	53,734,640
事務費	2,640,000	3,360,000
會議費	1,200,000	1,200,000
消耗品費	2,871,500	3,276,400
稅金과公課	15,908,000	18,850,000
保險料	2,349,567	2,584,524
減價償却費	76,123,550	68,511,195
修繕費	11,812,000	12,913,000
廣告宣傳費	200,000	250,000
支給手數料	600,000	600,000
雜費	2,400,000	2,400,000
目的事業負擔金	100,000,000	115,000,000
淸掃費	4,514,000	5,307,500
3. (營業利益)	(△111,259,657)	(107,062,959)
4. (營業外收益)	(587,680,480)	(127,926,364)
受入利子	87,680,480	127,926,364
同窓會轉入	500,000,000	—
5. (法人稅等控除前利益)	(476,420,823)	(20,863,405)
6. (法人稅等)	1,820,622	(3,993,710)
7. (當期剩餘金)	(474,600,201)	(16,869,695)

歷代 總長등 초청 기념품 증정

115차 常任理事會: 送年會 겸해

동창회는 지난 12월12일 리베라호텔에서 제115차 常任理事會를 개최했다.

재단법인 冠岳會 이사회에 이어 送年會 성격으로 마련된 이날 모임에는 장광스러운 서울大 두분과 歷代 모교총장, 本報 편집위원 등을 초청하여 送舊迎新의 정을 함께 나누었다.

이날 崔主鎬회장은 『오늘은 특별히 자랑스러운 서울大人과 역대 모교총장님들을 모신 가운데 송년회를 갖게 되어 더없이 기쁘다』면서 이분들을 일일이 소개했다.

이어 曺奭 사무처장이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두분(李惠求·李兌榮박사)에 대한 공적사항을 보고했고, 이자리에 참석한 李兌榮동문은 답사를 통해 『이번에 제가 받은 상은 그 어느 상 보다도 값지고 영광스러운 賞으로 생각한다』면서 『모쪼록 이 상이 나로인해 흠집을 받지 않도록 남은 인생을 열심히 봉사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 참석동문들로부터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어 金鍾云총장은 『이번에 자랑스러운 서울大人을 선정한 것은 학교로서도 정말 자랑스러운 일을 한것같다』고 말하고 그동안 각계에서 모교 발전을 위해 지원해주신 동문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뜨거운 협조를 부탁했다.

한편 이날 모임에는 KIST 초청으로 모국을 찾은 在美총동창회 朴允洙회장이 자리를 함께 했는데, 朴회장은 在美동창회도 이제 친목차원을 넘어 총동창회와 함께 母校와 祖國을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정신으로 동창회 활동을 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장학회인 冠岳會를 法人體로 등록하는 것을 현재 추진중이라고 밝히고 그외 여러 事業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면서 협조를 구했다.

이날 모임은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2시간여에 걸쳐 진행됐는데, 헤어질때는 서로 준비한 기념품을 교환하면서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것을 기약했다.

다섯同門 새로 入閣

지난 12월19일 단행된 7개부처 내각개편에서 우리 同門 다섯명이 새로 내각에 입각했다. 이번에 입각한 동문들을 보면 李秀正(64년 文理大 政治學科卒) 동문이 문화부장관에, 韓鳳洙(56년 法大 行政學科卒) 동문이 상공부장관에, 徐榮澤(62년 商大 經濟學科卒) 동문이 건설부장관에 임명되었다. 또 총무처장관엔 李相培(62년 法大 行政學科卒)동문이 정무제2장관에는 金甲現(구명 金靜子·49년 法大 法學科入學)동문이 각각 기용되었다.

文化 李秀正 (文理大)
商工 韓鳳洙 (法大)
建設 徐榮澤 (商大)
總務處 李相培 (法大)
政務2 金甲現 (法大)

◇李 문화

◇韓 상공

◇徐 건설

◇李 총무처

◇金 정무2

이로써 동문출신 국무위원은 鄭元植국무총리, 崔珏圭(경제)·崔浩中(동일)부총리를 비롯 모두 19명으로 늘어났다. (별표 참조)

人閣동문 名單 (고딕 新任)

職位	姓·名	學歷 — 經歷	職位	姓·名	學歷 — 經歷
총리	鄭元植	54년 師大·모교 師大學長 교육회장·문교부장관	건설	徐榮澤	62년 商大·재무부세제국장 재무부세제2차관보·국세청장
부총리(경제)	崔珏圭	57년 文理大·농림수산·상공부장관	노동	崔秉烈	64년 法大·조선인보편집국장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공보처장관
부총리(동일)	崔浩中	13代 議員·民自黨정책위의장 56년 文理大·상공부차관 駐사우디大使·외무부장관	교통	林寅澤	63년 法大·특허청장·고산관소장 공업진흥청장·상공차관
외무	李相玉	57년 文理大·駐 상가포르大使 외무부차관·駐제네바大使	체신	宋彦鍾	60년 法大·光州시장 내무부차관·수석
법무	金淇春	62년 法大·大邱고검검사장 법무연수원장·심찰총장	총무처	李相培	62년 法大·경북지사·환경청장 내무부차관·청와대행정수석비서관
문화	李秀正	64년 文理大·대통령정무비서관 문화방송사장·청와대변인	과기처	金鎭炫	58년 文理大·동아일보 편집국장 논설주간·행정개혁위원
농림수산	曺京植	59년 商大·해운항만청장 교통차관·환경처장관	환경처	權彝赫	47년 醫大·모교병원장 모교총장·문교 — 보사부장관
상공	韓鳳洙	56년 法大·기획원공정거래위원장 무역진흥공사사장·한전사장	공보처	崔昌潤	66년 文理大·문공부차관 13대의원·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정무2	金甲現	49년 法大人學·창원상학대학 이사장·대한YWCA연합회장	법제처	崔相曄	61년 法大·大檢형사2부장 大檢공안부장·大檢차장

單大새해 設計 분주 모임 잇따라

▲工科大學同窓會(회장 崔鍾亮)는 지난 12월6일 오후6시30분 母校 호암생활관에서 이사회를 개최했다.

崔회장과 李基俊학장의 인사에 이어 사업보고, 수지현황보고의 순으로 진행된 이날 이사회에서는 중도탈락 두동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회원가입을 통과시켰다. 또 최고산업전략과정이수자도 준회원으로 인정하기로 하고 이를위해 내년 총회에서 회칙개정절차를 밟기로 했다.

한편 92년도 총회일자는 5월 세째주 일요일로 정했다.

▲師範大學同窓會(회장 權相澈)는 지난 12월9일 오후6시30분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송년회를 개최했다. 權회장과 黃迪倫학장등 1백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權회장의 인사에 이어 학장인사, 李應百상임고문의 축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은사와 고문에 대한 선물증정이 있었다.

이어 여흥과 각계동문들이 협찬한 경품추첨으로 흥겨운 시간을 가졌다.

▲商大同窓會(회장 張禮準)는 지난 12월6일 오후 6시30분 大韓商工會議所 상의클럽에서 금년도 總會를 개최하고 임기만료된 張禮準회장을 재선임하고, 副會長團은 張회장에게 일임키로 했다.

동문 약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총회에서는 또 91년도의 決算과 在學生지원, 向上의 탑 발간, 우수졸업생 시상등을 골자로 하는 92년도, 예산 8천8백만원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이날 총회는 91년을 보내는 아쉬움 속에서 「送年의 밤」행사도 겸해서 치루어졌는데 관례대로 이날 모임에 가장 많은 同門이 참석한 8회 6회 5회에 「뭉치자 賞」을, 가장 많은 협찬금품을 보내준 11회 14회 9회 그리고 朝興銀行 지부에 「단자賞」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醫科大學同窓會(회장 姜信浩)는 지난 12월23일 하얏트호텔에서 송년회를 겸한 「舍春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모교 金相仁학장, 盧寬澤병원장 등 동문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을 이룬 이날 행사는 원로동문들과 신입회원들이 어우러져 격의없는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행사 후에는 경축동문 축하와 아울러 빙고게임등 여흥을 즐기며 각계 동문들이 협찬해준 경품을 추첨하여 나누어주기도 했다.

▲看護學科同窓會(회장 楊銀淑)는 지난 11월30일 12시 라마다르네상스호텔 간호대학설립 축하연을 3층 다이아몬드룸에서 개최했다.

간호대학설립을 위해 애쓴 동문들에 대한 감사와 母校사랑을 더욱 고취하자는 취지로 열린 이날 축하연은 楊회장과 金梅子간호학과장등 3백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자리에서 楊회장은 『우리 동문들의 숙원이던 간호대학설립이 이루어진 것은 다 동문들의 성원덕』이라고 치하하고 앞으로도 계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이날 축하연은 학과장의 간호대학설립추진경과 보고, 장기발전기금모금추진경과보고, 기념사에 이어 여흥의 시간을 가지며 看護大 송경을 전동문과 더불어 자축했다.

▲經營大學院同窓會(회장 李孝益)는 지난 12월23일 오후6시 퍼시픽호텔에서 동문 약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送年의 밤」 행사를 가졌다.

◇ 퍼시픽호텔에서 열린 경영대학원 동창회 송년의 밤 광경

진행된 이날 모임에서 李회장은 『세계적으로 經濟가 후퇴하고 불황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는 先進病에 걸려 過消費가 늘고 이로 인해 적자폭이 매년 늘어가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한후 『經營學을 배운 우리부터 과소비를 억제하고 더 일하는 자세를 견지해서 經濟不況을 타개해나가자』고 역설했다.

이어 經營大 학장을 대리하여 尹桂燮교무담당 학장보가 모교의 入試현황등 최근의 학교 소식을 들려주었다. 다음에는 대학원 경영학과 자치회장인 박정빈군에게 등록금 전액의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만찬을 들면서 정을 두터이 했다.

▲保健大學院同窓會(회장 金大奎)는 지난 12월9일 연건동캠퍼스 강당에서 동문 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총회겸 송년행사를 거행했다.

회장인사에 이어 91년도 업무보고, 92년도 사업계획, 세입세출예산안심의로 이어진 이날 총회에서는 차기 임원에 대한 선출이 있었는데, 회장과 부회장을 유임시키고, 이사는 추후조정키로 결의했다. 총회후에는 각계동문들이 협찬한 景品이 추첨을 통해 동문들에게 전달된 한편 91년판 회원명부가 배포됐다.

▲行政大學院同窓會(회장 俞尙根)는 구랍 12월3일 마포 동창회관5층 冠岳홀에서 임시총회를 겸한 송년간담회를 개최했다.

모교 吳錫弘원장, 姜敏求부회장등 5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신년도 사업계획및 예산안심의에 이어 기존 事務局을 事務處로 변경하는 내용의 회칙개정이 있었다.

한편 同會는 논총 「행정과 정책」 제2권 발간을 위해 논문등 동문들의 원고를 오는 2월2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각계 同門들의 새해 設計

1992년 새아침이 밝았다. 새해를 맞아 우리 19萬 동문 모두에게 부디 健康과 사랑과 幸福이 가득하고 하는 일마다 알찬 結實을 맺었으면 한다. 대망의 새해아침, 각계 동문들의 신년 설계를 들어본다.〈卒業年度順〉

勤儉·節約·勞使화합을…

金 鍾 大〈41년 商大卒·大田皮革 會長〉

日日人空老 年年春更歸 相歡有尊酒 不用惜花飛의 心境인 요즘이다.

古稀를 지났다고 해서 退役한 것은 아니나 젊은 사람들의 新思考를 중요시해서 基本政策에만 관여하고 있다.

下降一路에 있는 우리 나라 경제의 沈滯 後退가 민주화과정에서 불가피하다니 일시적인 調整現象이라는 등 여러가지 見解가 있지만 결코 방치할 것이 아니며 起死回生을 위해 철저한 검토를 해서 확고한 대책을 樹立 實施해야 하겠다.

民主主義는 한사코 守護해 나가야 하지만 自由와 放縱을 명확히 구별하며 權利와 義務를 잘 지키도록 정부는 法을 嚴正히 집행해야 한다. 政治와 行政이 당리당략을 떠난 거시적

◇金鍾大 동문

인 입장에서 다루어 져야 한다.

金利 賃金 UR문제 勞使관계 技術개발등 문제가 山積해 있다. 選擧가 많은 새해에 물가가 폭등할까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物價가 안정된다면 勞使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가 있을 것이다.

百尺竿頭에 선 企業人은 필사적으로 自救策을 강구하고 있다. 기업인의 倫理를 굳게지키며 勤儉 節約과 勞使和合을 제일로 하고 經濟力集中 不公正去來 獨寡占등은 엄히 경계 자성해야 하며 資本과 經營의 분리, 공정한 競爭體制 구현등은 매년 되풀이 하는 일이지만 새해에도 계속 最善을 다해야 하겠다.

藝術人의 使命 더욱막중

申 榮 均〈55년 醫大卒·前 藝總 會長〉

이제 21세기도 불과 8년 남짓 남겨놓고 있다. 세기 말이되면 인류사는 커다란 변혁에 휩싸이곤 했다. 20세기 말도 역시 예외는 아닌듯 싶다. 이미 반세기 가까이 우리를 짓눌러온 이데올로기의 종식과 함께 냉전구도의 붕괴가 우리 눈앞에서 빠르게 전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세계는 정치·경제·사회·문화등 모든 분야에 걸쳐 대변혁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변혁은 얼마간의 혼돈을 수반하기 마련이다. 나는 이러한 혼돈을 생각할 때마다 예술가

◇申榮均 동문

집단을 「종족의 안테나」라고 표현한 맥루한의 말을 떠올리게 된다. 지금과 같은 세기말 대변혁에 따른 혼돈상태가 가중될수록, 예술가는 인류의 안테나가 되어 인류문화의 나아갈 길을 밝히는 최첨병의 역할을 맡아야 할 것이며 지금 이 시기야 말로 예술가의 역할과 영향력이 그 어느때 보다도 막중하다는 사실을 느끼게 된다. 우리 시대의 문화가 어떤 얼굴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술인 손에 달린 것이다.

내가 후배 예술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자유로운 실험정신과 예술혼을 통해 인류에게 값진 시대정신을 남겨주길 바라면서 다가오는 세기는 보다 밝은 세상이 되길 기대해 본다.

學問, 현실과 연결 실천

黃 迪 倫〈58년 師大卒·모교 師大學長〉

나에겐 歲月이란 週, 月, 年등 단위의 連鎖라기 보다는 하나의 連續的인 흐름이다. 그래서 『새달』, 『새해』등에 대해 남들처럼 민감하지 못하며 해가 바뀌어도 별다른 설계나 다짐을 하지 않고 지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새해 설계』를 말 하라는 요청을 받고 생각을 해보니 역시 해가 바뀌면 어떤 계획이나 다짐을 새로이 해 보

◇黃迪倫 동문

는것도 좋은 일인것 같아 설계라기 보다는 몇가지 다짐을 해 본다.

우선 나자신의 사람됨과 관련된 것으로서, 내 말을 하기 보다는 남의 말을 듣는 일에 치중하고, 어떤 결정을 내림에 있어 輕率과 果斷, 優柔不斷과 愼重을 혼동하지 않는 修養을 쌓는 일에 힘쓰자고 다짐 해본다.

學問과 관련된 것으로서, 개인적으로는, 學問은 궁극적으로 현실문제와 연결되어야 한다는 평소의 소신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話用的言語學(Pragmalinguistics)의 연구결과를 우리나라의 英語敎育現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부분적으로나마 제시해보도록 하며, 學會活動으로서는 회장직을 맡고 있는 韓國社會言語學會의 會誌 창간호를 새해 봄 까지는 꼭 發刊해야겠다고 다짐해 본다.

學長職을 맡고 있는 학교와 관련된 것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중 한가지, 國家의 興亡盛衰를 좌우하는 敎育과 관련된 學問을 연구하고, 교육의 성패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敎師를 養成하는 師範大學이 보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가에 대한 合意를 도출하는 일만은 꼭 이루도록 해볼 생각이다.

總選에 同門 협조 기대

申 五 澈〈59년 法大卒·國會議員〉

국내·외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어려웠던 한 해를 온 국민이 슬기를 모아 지혜롭게 극복한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

년초 中東의 걸프전은 한해의 시작을 불안하게 하였고 東西獨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온 세계를 감격과 흥분속으로 몰았다. 그리고 75년이란

◇申五澈 동문

세월을 통치한 소련연방이 역사속으로 사라지는 등 한 해가 저물때까지 세계는 급변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對北方 정책에서 합의서의 도출로 갖가지 이념의 벽에 금이 가고 화해의 장이 엿보이는 등 이미 국회의원등 정치인이 북한을 방문하였고 경제교역이 이루어지고 잠실벌과 능라도 경기장에서 스포츠가 중계되는, 꿈만으로 여겼던 통일을 앞당기는 한해였다.

13대 國會에 등원한 이후 혼미한 정국속에서도 용기와 신념을 갖고 각종 법률 개·폐에 앞장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온갖 성원을 아끼지 않아준 동문들에게 감사드린다. 다가오는 총선에서도 여러분의 질책과 격려를 바탕삼아 심기일전하여 신뢰와 사랑을 국민가슴에 심는 새로운 정치를 향해 힘껏 뛰어보겠다. 한해를 보내고 새해를 준비하는 관악의 동문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한다.

自然·人間회복 위한 敎育

林 承 龍〈61년 農大卒·培花女高 校長〉

나는 30년이 넘도록 학교에서 학생들과 生活하면서 한 해를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게 바쁜 生活을 해왔다. 60년대이후 해가 바뀔때 마다 학생들의 생각과 行動의 변화가 加速化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으며 최근에는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方向으로 급변하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모든 責任이 학교에만 있다고 볼 수는 없겠으나 그렇다고 우리 敎育의 責任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일로서 누구를 탓하고 책임전가를 할 여유가 없다고 본다. 入試制度나 敎育制度의 모순과 교육환경 때문이라고 불평도 해보지만 그 보다는 교육을 맡은 우리들, 넓은 의미의 이 社會 지도층에 있는 우리가 바로 서

◇林承龍 동문

지못한데에 원인이 있다고 본다. 이제 그 원인을 알아 우리의 모습을 바로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를 위해 우리의 生活 터전인 이 땅과 自然을 본래의 모습으로 소생시키는 것이 급선무인것 같다. 선진국이 되고 경제가 고도성장한들 마음놓고 호흡할 수도 없고 마실 물조차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으며 후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겠는가 말이다. 다음은 인간회복운동이다. 본래 인간으로의 회복없이는 사회악이 근절될수 없다고 본다. 이 두가지만이라도 새해에는 힘써 교육을 해야겠다는 것이 나의 새해 소망이다.

職業專門性 한층 강화

安 炳 璨〈75년 新聞大學院卒·시사저널 編輯人〉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 시종여일하게 걸어가야겠다고 다짐하곤 하지만 흡족히 여긴 적이 없다.

92년도 같은 생각을 하며 정초를 맞이한다.

개인적으로는 자기를 가다듬는 작업을 멈추지 말아야 하겠다고 여기고 있다.

지난해 12월에 우리 「시사저널」은 두번째로 수습기자를 뽑았는데 언론계에 첫발을 내디디는 젊은이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전문적인 직업인으로서 성장해달라는 것이다. 전문직업인으로 자신을 가다듬는 일이 어디 초임기자에게만 한정되는 것인가. 선임기자인 우리에게도 예외없이 적용되는 것이다.

한 주 전에 우리는 제작공정상의 착오로 오보를 냈다. 「이라는 인물과 ㄴ이라는 인물의 사진을 뒤바꾸고만 것이다.

자책하고 자괴하기에는 시간이 늦었다. 이러한 착오를 막기 위해 가장 긴요한 것이 확인정신이다. 확인정신은 전문성의 강화에 의해서만 보장된다.

새해에 「시사저널」은 구성

◇安炳璨 동문

원들의 직업전문성을 한층 강화하면서 세가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루어보고자 한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 뿌리를 파헤치고 환경공해를 감시하며 민족통일의 미래를 설계해나가는 일이 그것이다.

여기에 한가지 덧붙여 다짐해야 할 일은 선거의 철에 대비하는 우리 자세이다. 언론의 가장 큰 병폐인 「선정주의」를 철저히 배격하고 사실과 진실의 토대에 입각해서 선거를 맞이하자는 것이 우리 목표이다.

理論과 經驗 폭 넓힐터

呂 勳 九〈86년 大學院卒·서울 南部支院 判事〉

지난 해를 돌이켜 보면 대외적으로는 동서간 이념적 대결의 와해와 자유무역의 압력이 증가되고, 대내적으로는 정치, 경제, 사회적인 큰 변동과 함께 남북간 교류가 확대될 전망을 보이는 등 이제 우리는 큰 변혁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에 따르는 국제교류의 질적·양적 확대, 사회 각층의 수요와 이해관계의 복잡·다변화는 법조인들로 하여금 사회현상의 이면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통찰, 그에 터잡은 균형감각 그리고 국제적인 감각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것은 사회적인 분쟁을 법질서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나아가 법질서의 발전적인 형성을 도모하는 법조인의 역할 수행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나는 새해를 맞이하여 사건기록을 통한 경험외에도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폭넓은 독서와 어학 연찬을 통하여 경험의

◇呂勳九 동문

폭을 넓히고, 한편 컴퓨터의 적극적인 활용방법을 습득하여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과정을 단축하고 자료 정리 능력을 함양함으로써 다양화하는 분쟁을 보다 공정하고 적정하며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한해가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새해에는 우리 대학 동문들의 출중한 능력을 끈끈한 정으로 북돋아 줄 동문들간의 마음의 동아리를 형성하는 대전기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세계 名門大일수록 同窓會와 관계긴밀

同門의 관심없이 모교 發展은 없다

新春특별기고

趙 完 圭
〈52년 文理大 卒 · 前 母校總長 · 本報 編輯委員〉

國際的 경쟁력있는 人材養成 시급
외국博士 選好하는 現實 안타까워
母校愛 활활 타오르길 期待

서울大學校 前身을 포함한 동문이 벌써 19만에 육박하고 있다. 그 수가 큰 것도 자랑일 수 있지만 全國방방곡곡에서 모인 英材들이 敎育 훈련을 받아 배출되었고 각 분야에 중용되어 그 資質을 발휘하여 왔기 때문에 解放이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建國과정, 近代化, 先進化하는 과정에서 절대적인 공헌을 한것을 자랑하여 마땅하다. 어느 分野에서든 서울大學校出身을 제거하면 나라 存立이 불가능하다고 하여도 過言이 아니다. 이처럼 나라 運命과 직결하고 있는 大學의 責任者로 4년간 봉사할 수 있었음은 本人의 크나큰 보람이 아닐 수 없고 특히 大過없이 所任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서울大學校 가족 여러분의 支援이 있었을 뿐아니라 특히 동문여러분들의 協力과 激勵에 크게 힘 입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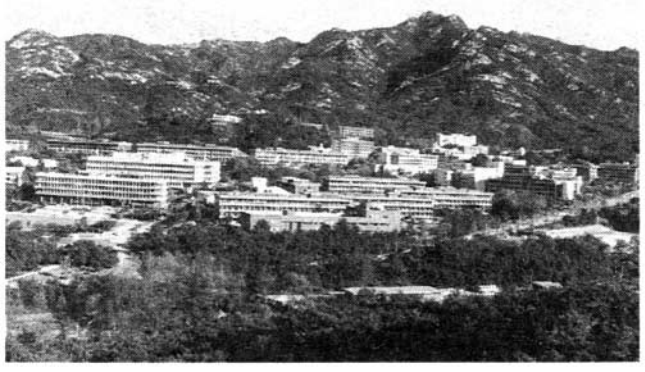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 자리잡고 있는 서울大學校의 위치로 보아 그간의 우리나라 經濟成長을 보는 외국의 저명한 學者들은 서울大學校가 성장의 비밀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 동문들이 海外에 진출하여 보여주는 優秀性을 경탄하고 그들 學者들이 서울大學校 내부를 쇄부하려고 하는 意圖가 있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이 때문에 先進國은 선진국대로 開途國은 또 그들대로 근래에 서울대학교와의 學術交流를 切望하고 있음은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한편 學內에 內在하고 있는 여러가지 취약성을 감안한다면 서울대학교가 국제적인 무대에 나서기는 아직도 문제가 많다는 점을 本人뿐 아니라 敎授들이 같이 인식하고 있다.

나라의 발전은 곧 유능한 人材의 양성에 달려있으며 이는 곧 人力養成機關인 大學의 敎育 및 硏究與件과 직접 관련된다. 그간 우리 서울대학교가 우수한 人力을 배출한 것은 틀림없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國內에 한한 것뿐이요, 國際的 경쟁력 있는 人力을 養成하지 못하였다. 서울大學校 國內에서 길러낸 博士보다 外產博士를 선호하고 있는 현실이 이를 克明하게 말해 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서울대학교는 敎育이나 硏究施設이 경쟁국 대학수준에 크게 뒤쳐지고 있는 것이다. 學生數가 3분의 1이 적은 東京大學의 10분의 1, 臺灣大學의 3분의 1인 豫算으로는 一流大學이 되기가 어렵다. 특히 오늘날 先進國으로 갈 것인가 落後할 것인가의 갈림길에서 나라의 運命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大學校의 育成없이는 결코 낙관할 수 없다.

世界 名門大學은 동문들을 다루는 副總長制를 두고있을 정도로 同窓會와의 관계가 두텁다. 동문의 支援이나 관심없이 大學이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 大學의 組織에서 쉽게 엿볼 수 있다. 서울大學校는 그간 훌륭한 人材를 양성하여 사회에 진출하게 하고 있으나 관례로 母校와는 거의 관련을 맺은일이 없었다. 개개인은 모두 뛰어난 才質이 있으나 個人主義 성향이 강하고 모두 독독하여서 남의 지시를 받거나 서로 協力하기를 덜 좋아한다고 알려져 왔다. 이같은 評價에 『그렇지 않다』고 장담할 동문이 없었다. 그러나 지난 數年동안의 경험을 통하여 그 말이 맞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6共에 들어서기까지 수십년간 大學은 매우 경직된 環境에 있었다. 大學은 항상 學生소요로 寧日이 없었고 總長은 學生문제를 다루는 것이 그 職務의 전부인 것처럼 되어버렸다. 또 學內事態가 원인이 되어 總長들은 그 任期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는 것이 常例처럼 되어 버렸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總長들은 내일을 計劃하고 發展을 구상하는 것같은 일은 거의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同窓을 관리하는것 따위의 일은 아예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같은 硬直된 여건에서는 大學으로서 새로운 事業의 착수도 어려웠을 뿐 아니라 同門 또는 社會 각층에 大學育成을 위한 支援이나 協助를 구할 분위기도 되지 못했었다. 특히 우리나라 모든 大學 가운데 선도적인 서울大學校이었기 때문에 지난날 硬直되었던 때 政府나 社會는 서울대학교 育成에 의지가 없었던 것처럼 보인것도 事實이다. 그러나 최근 數年동안 대학의 분위기가 安定되어가고 勉學과 硏究의 中樞로서 그 면모가 一新함에 따라 大學으로서도 각종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고, 나아가 大學의 育成을 위해서 政府, 產業體 그리고 同門들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總長으로 재직하는 동안 海外出張 나갈 기회가 비교적 빈번하였고 그 때마다 행선지역의 同門들 모임을 갖게 되었다. 가는 곳 마다 적게는 30명 많은 곳은 1백여명의 동문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간의 母校 발전상황과 발전구상을 설명하면 모두가 새삼 同門임을 확인하고 母校에 대한 寄與方案을 제기하는등 매우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주어 보람을 갖게 되었다. 國內에서도 地方을 돌면서 그 곳 同門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 母校의 소식과 발전을 소개하면 그간 까맣게 잊어온 母校의 모습을 그리면서 만족하였다. 이처럼 同門의 母校에 대한 관심을 촉발하는 일은 大學발전에 가장 긴요한 일 중의 하나임을 알게 되었다. 서울大學校의 발전이 곧 나라의 발전에 직결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 同門의 母校에 대한 관심과 寄與는 곧 나라에 대한 사랑과 공헌에 一致한다고 할 수 있다.

20여년전 각 單科大學의 동창회를 규합하여 통합된 서울大學校同窓會로 발족하였고 麻浦에 회관을 건립하여 同門들의 求心體기능을 하고 있으며 또한 수만부 刊行配布하고 있는 同窓會報는 國內外 同門들의 兄弟的 유대를 공고히 하고 나아가 母校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데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매달 配布되는 會報에 실리는 同窓會費 징수실적을 보면 今昔之感이 있으며 冠岳登山의 날 행사에 參與하는 同門들의 숫자가 급히 增加하는 경향을 보거나 그 때마다 喜捨하는 동문들의 熱意를 보아 이제 우리 同門들도 서울大學校라는 큰 우산속에 結集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지난해 5월에는 파리에서 在佛서울大學校同窓會가 창립됐고 6월에는 워싱턴에서 在美서울大學校同窓會가 발족하였다. 특히 在美同門들은 「서울大學校後援財團」을 설립하여 본격적인 募金운동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海外硏修중인 母校敎授의 연구지원 혹은 母校에서 배출된 博士들의 海外硏修를 지원하고 奬學金財源을 마련하기 위하여 在美同門들이 적극적으로 모금활동을 벌이기로 한 것이다.



◇ 모교가 世界的 名門大學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동문들의 적극적인 支援이 있어야 겠다.

海外同門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서울大學校 發足이래 처음있는 일이며 이제 우리 同門들도 世界的인 조직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母校에서도 「서울大學校發展基金」이라는 재단으로 再發足하여 募金운동을 전개하여 온 것이 1년여가 된다.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同門들의 수가 요원의 불길처럼 퍼져나가는 것을 목격하면서 감격할 뿐이다. 국내외로 다져나가는 동문들의 母校사랑의 열기가 더욱 더 커가는 것을 볼 때 個人主義니, 무관심이니 하던 同門들에 대한 그간의 관념이 크게 틀렸다는 것을 새로 발견한 것이다. 다만 그간 母校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았었다는 것 뿐이다. 國家가 어려울때 이를 구할 책임이 서울大學校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나아가 母校가 世界學問發展과 平和에 기여할 수 있는 世界名門大學의 班列에 등재될 수 있는가 여부는 오로지 同門들의 절대적 支援에 달려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同門 여러분들의 더 알찬 기여를 바라마지 않는다.

山中에 일군 서울大人의 꿈

人物

지리산 쇠점터 農場 鄭再建·桂玲子 동문부부

○… 물질적인 성장을 지상목표로 뒷돌아볼 여유 …○
○… 도 갖지 못한채 새해를 맞는 우리 사회에도 따 …○
○… 스한 삶을 간직한채 보듬이로 하여금 잃어버린 …○
○… 「고향」을 일깨워주는 서울대인이 있다。세칭 국 …○
○… 내최고의 대학을, 그것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 …○
○… 한 동문부부가 산간벽지에서 20년간 일구어온 …○
○… 삶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의미를 새해아침 조용 …○
○… 히 들여다봄으로써 우리가 지향하는 곳이 어디 …○
○… 인가를 조망하고자 한다。

지리산 깊은곳에 묻혀 밤나무를 키우고, 벌을 치며, 밭을 일구면서 20년간이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잘못 의아스럽게 여긴다。

『우리의 삶이 일방적으로 외부에 의해 평가받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 개체로서 우리가족도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항상 20대 남편일 뿐」이라 말할 정도로 주도권이 바뀌어 있다。

鄭동문의 聘丈은 대법관을 역임한 桂昌業변호사(40년 法大卒)로 이곳 쇠점터농장 부지를 처음 발견하고 매입했던 실질적인 원인제공자。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섬진강변을 승용차로 달리며 鄭동문이 들려준 이야기에서 그가 이곳에 안주하는 심정의 편린을 읽을 수 있었다。

『아직 때묻지 않은 자연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이곳에서 우리 가족이 생활할 수 있을 만큼 일구어 거둘 수 있다면 세상 무엇이 부럽겠습니까』

요즈음 들어서는 이곳의 위치나 자연환경을 자신들만 향유하기가 아까워 知人들을 위주로 조금씩 개방을 하고 있다고。현재 숙박시설로는 일시에 1백20여명 정도를 소화할 수 있는데, 작년여름에만도 1백여명이 이곳을 찾았다。그럼에도 鄭동문은 이곳을 『그저 큰 농가』라고 자처하는데, 밤농장이 10정보 가량, 방목하는 흑염소가 많을때는 50여마리, 벌통이 2백여개에 이르고 특히 지난해부터 시작한 養鹿(9마리)과 닭·오리등 이들의 손길을 기다리는 식솔들을 볼라치면 과연 이들에게도 寧日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본동사람 같으면 이곳을 그대로 넘겨준다 한들 유지해 나가지 못할 형편이다。

사흘이 지나도 사람하나 구경할 수 없는 오지에서 영농교본을 세번 네번 보면서 농사짓기와 동물길기를 터득했다는 이들 부부는 세상 어느 고달파도 마음만은 세상 어느 누구 부럽지 않을 정도로 윤택하다며 밝게 웃는다。

앞으로의 계획을 묻자 桂동문은 『처음엔 양잠도 하고 소도 쳐봤지만 양봉이 제일인것 같아요。지난 83년에는 야생꿀을 수돗물 받아내듯 하여 재미(?)를 보았는데, 이것도 주 꿀을, 여름부터 가을까지는 강원도의 꽃을 찾아 연중 3개월 가량은 이산가족이 된다고。

산중생활을 하면서 문제가 있었다면 두 딸의 교육문제였다고 한다。큰딸 玲理는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인근에 중학교가 없어 아버지의 지도로 집에서만 1년을 공부한 끝에 고입검정고시를 거쳐 진주 삼현여고에 진학한다。이곳에서도 『단지 임시만을 위한 고등학교 공부라면 집에서 혼자 해보고 배우게 하고, 어른들도 일상의 찌든 때를 씻을 수 있게끔 하고 싶어요』라고 말한다。

현재 농장일은 부인이 전담하고 鄭동문은 양봉을 주로 맡고 있는데 「꿀은 양봉가의 인격」이라는 신념으로 12년째 해오고 있다。봄에는 지리산의 꽃을 찾아 연중 3개월 가량은 이산가족이 된다고。

산중생활을 하면서 문제가 있었다면 두 딸의 교육문제였다고 한다。큰딸 玲理는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인근에 중학교가 없어 아버지의 지도로 집에서만 1년을 공부한 끝에 고입검정고시를 거쳐 진주 삼현여고에 진학한다。이곳에서도 『단지 임시만을 위한 고등학교 공부라면 집에서 혼자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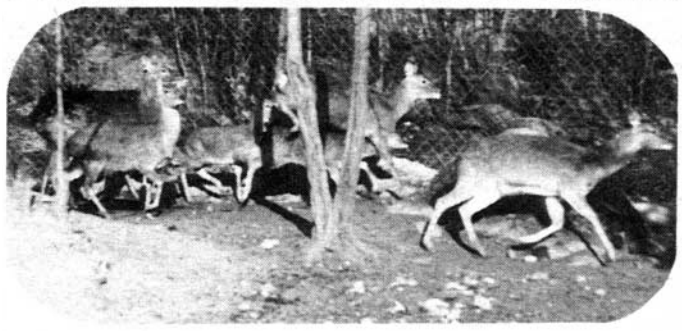
"사람다운 삶 찾아 入山했지요"

전형적 都市엘리트 부부가 펼치는 소박한 幸福觀

사슴·벌·염소 돌보느라 寧日없지만 마음은 潤澤

거실에 걸려있는 「琴石山房」이라는 尹吉重씨의 휘호가 이곳의 분위기를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경남 하동군 지리산 쌍계사에서 시오리길을 더 올라간 해발 2백m의 山中, 화개천 계곡을 끼고 있는 6천여평의 언덕에 쇠점터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鄭再建(69년 文理大卒)·桂玲子(70년 文理大卒) 동문부부。사람들은 국내 최고의 명문대를 졸업한 엘리트부부가 하기 25는 45라고 정형화하는 시각을 저는 갖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鄭동문은 경기고를 나와 모교 사회학과를 次席으로 졸업한뒤 대학원에 진학, 「도시화와 가족구성에 관해서」라는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부인 桂동문은 경기여고를 졸업하고 모교 美大조소과를 3년간 다니다 뜻한바 있어 「1년을 접어두고」 사회사업학과 2학년으로 轉科한 이력을 지니고 있다。



◇ 20년간 피땀흘려 일군 쇠점터 농장을 배경으로 다정스레 포즈를 취하고 있는 鄭·桂동문 부부。아래사진은 쇠점터 농장가족의 일원으로 鄭동문 부부는 올해 養鹿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鄭동문은 70년 부인과 결혼, 단칸방에서 대어난지 얼마 안된 맏딸 玲理등 세식구가 신혼살림을 하던중 장학금이 보장된 유학길을 버리고 72년 2월 혼자서 퇴거신고를 하고는 홀연 이곳으로 내려왔다。그때 만해도 남편의 이러한 처신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桂동문이었지만 자의반, 타의반으로 눌러 살다 보니 20년이 흘른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鄭동문이 『나는 단지 이곳 농장주의 기가 있다고 해요。또 한편 올해 시작한 양록에도 기대를 걸고 있지요。그리고 앞으로 이 농장을 몸과 마음이 고단한 이들이 재충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족 모두가 찾아와 아이들은 사슴과 염소, 그리고 이곳의 자연을 몸소 재 서울의 국립국악고등학교에 재학중이다。둘째딸 瑪理는 예기치 않게 國樂에 심취, 현 도 좋지 않느냐』는 말말에 게 『학교교육이 그것만은 아니지 않겠는가』라고 오히려 설득을 할 정도였다고。현재 맏딸은 모교 불문과 1학년에 다니고 있다。

"20年 가꾼 花開골짜기… 고향집 분위기의 家族휴양지로 개방할 터"

진화해 우리 전통 궁중음악인 정가를 배우고 있다。워낙 인적이 드문곳에서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자연과 친숙해져 돌멩이 하나, 풀포기 하나에도 각자 이름을 지어 부를 정도였다고 한다。취재 도중 서울 큰딸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는 桂동문의 목소리가 유독 생기에 넘치는 것을 보면서 곧 방학을 맞아 내려올 딸들을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을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었다。

鄭동문의 이곳 생활 20년 가운데 약 1년간의 공백이 있었는데, 대학강단에 서보라는 선배의 강권에 못이겨 84년 진주 경상대에서 철학·사회학 개론 시간강사를 역임했던것。그 사이에 농장이 황폐해지고 정성을 쏟았던 벌통이 전멸하는 것을 보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시 산속으로 돌아온 것을 보면 그의 지금 생활이 천성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싶다。

인근 주민들로부터 「실패만 하는 사람」으로 불린다고 자처하는 이들 부부는 그러나 나름대로의 꿈을 일구어 그것을 실현하는 단계에 와 있다고 전한다。『지금까지는 이익이란 것을 생각해볼 여유도 없었지만 올해를 기점으로 그간 흘린 땀과 눈물의 결실이 나타날 것도 같습니다。 그래 우리 이웃들과 우리를 아는 사람들에게나마 「고향」을 찾고자 하는 욕구를 채워주려 합니다』라고 말하는 鄭·桂동문 부부는 산안개가 희부옇게 피어오르고 새들이 잠에서 깨기 시작하는 가운데 계곡물이 도란도란 흐르는 새벽, 스스로 덖어 끓여낸 녹차를 사이에두고 하루를 계획하는 것이 커다란 즐거움이다。『20대 철모르던 시절 이곳에서 보낸 사계절이 그때마다 좋기만 했는데, 30대를 지나 40대에 맞는 겨울 지리산을 생각하면 이제 그 즐거움이 절로 몸에 와닿는다』고 이들 부부는 미소 짓는다。

아직 TV하나 없고 누구 하나 알아줄만한 명예도 없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삶을 엮어가는 이들 부부를 두고 사회의 잣대로 幸·不幸을 재본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느꼈다。

天然物연구 專門기관

生藥연구소

研究에 希望을 걸고 〈6〉

企劃 取材

生藥研究所 (소장 李殷芳 교수) 는 서울대학교 부속 법정연구소로 그 연원은 1939년「경성제국대학 부설 생약연구소」로 거슬러 올라간다。경기도 개성시 운학동에 건물 6백평, 시험장 7만평의 규모로 설치된 同연구소는 이후 46년 8월 국립서울대학교설치령이 공포됨에 따라 서울대학교 생약연구소로 개칭되어 醫大건물내에서 연구활동을 해왔다。그후 68년 8월에 현재의 구관건물 6백평을 신축하고, 83년에는 신관 2백평을 증축 사용하고 있다。이밖에도 경기도 시흥군에 1만 7천5백평 규모의 생약재 배시험장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각종 생약을 재배하여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한편 순화재배도 실시하고 있다。

국내 유일의 天然物연구 전문기관으로서 천연자원, 천연물의 성분화학적 및 생리활성에 관한 기초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천연물의 활용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생약연구소는 천연물과학 분야의 전문연구인력 양성에도 큰몫을 하고 있다。현재 10명의 연구교수가 생물활성물질의 검색및 연구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들의 연구활동은 본대학 소속 대학원생들의 연구에까지 확장되고 있다。

생약연구소는 3개의 연구부서, 즉 천연물화학연구부·생물활성연구부·자원개발연구부로 구성돼 있으며 그밖에 기기분석실등이 부수돼 있다。특히 同연구소의 생약표본실은 세계각국에서 수집된 1만2천여점의 생약표본을 소장하고 있어 국내 최대의 생약표본실로 꼽히고 있다。

▲ 서울대병원 뒷편에 위치한 생약연구소 전경. 左측 사진은 생약표본 1만2천여점이 소장된 생약표본실.

抗癌劑·肝炎치료제 開發 힘써

新物質 50여種 발견, 學界서 업적 인정

각 연구부의 개략적인 연구사업을 보면 △천연물화학연구부 : 천연물의 성분분리, 화학구조결정, 유기합성및 생합성연구, 성분분석용 표준물질보 △생물활성연구부 : 천연물성분의 생물활성연구, 화학구조및 생물활성과의 상관성, 일반 약리작용연구, 독성연구 △자원개발연구부 : 천연물자원조사, 재배육종연구, 생약조직배양및 전통약물의 과학화에 관한 연구등이다。

한편 생약연구소는 천연물분야의 연구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외의 각종 심포지엄·워크숍및 세미나를 주관해 왔는데, 그 횟수는 지난 90년까지 근 1백20여회에 이르고 있다。또한 국제적인 활동을 살펴보면 78년 UNESCO로부터 동남아지역 천연물연구센터로 지정되어 日本의 東京대학·홍콩의 中文대학 등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이와함께 WHO (세계보건기구)협력전통약물연구센터로 지정되어 美일리노이대학·인도 국립의약연구소등과 공동으로 식물로부터의 피임약물개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이밖에도 항암제·간염치료제개발등을 위해 꾸준한 연구를 해오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80년에「천연물에 관한 워크숍」, 81년「생약피임제에 관한 세미나」를 비롯해 최근까지 「아시아 천연물및 향신료에 관한 심포지엄」「시험관내 분석에 의한 생물활성물질의 분리에 관한 워크숍」「한국의 생약연구에 관한 워크숍」등을 꾸준히 개최해왔다。생약연구소는 또 매년 2백여페이지에 달하는「생약연구업적집」을 발간하고 있는데, 주요 업적내용을 열거하면 인삼의 성분, 산형과 식물의 성분, 산조인의 진정성분, 간염작용에 관한 성분, 소염작용성분, 피임작용에 관한 성분, 항암작용식물에 관한 연구, 약물대사효소에 관한 연구, 혈액응고방지작용성분연구, 생약의 독성연구등에 관해 이미 보고된바 있다。

그간 同연구소는 생약중에서 신물질 50여종을 발견해 학계와 관련업계로부터 그 업적을 인정받고 있다。한편 기존 제약회사, 관련기업체등과도 꾸준히 신약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인터페론·Gross 홀몬 개발등에서 좋은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상용되는 생약만도 그 수가 3백여종에 이르고 있는데, 이의 기초화학적 연구가 아직 불충분한 상태이고, 특히 그의 유효성에 관해 현대의 학적인 면에서는 아직 규명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李소장에 의하면 국내의 천연물 연구수준은 그간의 축적된 노하우로 인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와 있으나 외국과 비교할때 고등연구인력의 총이 빈약하다는 것이다。연구의 내실을 꾀하기 위해서는 Post Doc제도의 도입을 위시하여 박사급 연구인력을 다수 확보해야 하는데, 병역특례 혜택으로 그나마 보유하고 있는 3명으로는 양질의 연구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국고지원금과 용역연구비, 기타 과학재단등에서 지급받는 학술연구비가 연간 1억5천만원에 이르고 있지만 원활한 학술연구를 위해서는 최소한 현재의 두배는 확보돼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 各國서 수집한 생약標本 1만2천여점 所藏

이 연구소 관계자들의 견이다。한편 연구기기의 경우 사용연한과 시대적 추세에 따라 첨단시설로 교체가 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구입한 기기에 대해서는 10년이 넘어도 교체가 되지 않는 상태로 연구를 수행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생약연구소는 앞으로 정규적인 기초연구 이외에도 연구분야를 보다 확대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식물에서의 유용약용성분을 추출하는 작업과 병행해 향신료, 식품첨가물, 향료, 농약등 천연자원 전반에 관한 연구를 통해 연구소의 위상을 새로이 정립하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특히 천연물 가운데서도 해양천연물은 내륙산보다도 그 수가 방대함뿐더러 전인미답이라고 해도 좋으리만큼 연구자들에게는 의욕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데, 현재의 연구소규모로는 얼루를 내기 어렵다는 것。때문에 국내천연물 기초연구기관간의 협동과 산업계의 협동연구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한편 李소장은 시대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지금까지의「生藥」연구소라는 개념을 탈피해 보다 적극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조만간「천연물과학연구소」로 개칭할 예정이라고 밝힌다。「생약연구소」라는 명칭만을 듣고는 시골사람들이 각종 약초를 가지고와 사달라는 해프닝이 빈번하다고 전하는 연구소 관계자의 말처럼 일반통념들도 그간 생약연구소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으며, 그의 효용성이 어디에 있는가를 막연히 생각해온 것이 사실이다。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천연물 과학분야를 연구하는 유일한 연구기관이 모교에 있다는 사실은 서울대인에게 있어 또 하나의 긍지가 아닐 수 없다。이제 남은 과제는 40여년의 역사에 걸맞게 국제수준의 연구기관으로 발돋움하는「천연물과학연구소」에 보다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기울이는 일일것이다。

〈金庚勳 기자〉

朴允洙 在美 총동창회장

"동문 結集 위해 會舘 마련할 터"

奬學재단 설립, 모교 支援도 최선

同門을 찾아서

작년 6월1일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톤의 쉐라톤프레미아호텔에서는 在美서울대학교 총동창회 創立總會가 열렸다. 세계의 대학으로 거듭나려는 우리 母校의 위상에 걸맞게 동창들도 이에 부응하려는 意志를 보여준 경사스러운 날이었다.

이날 총회에서 초대회장에 朴允洙동문(52년 文理大卒)이 선임됐는데, 최근 일시 귀국한 朴회장을 찾아 동창회장으로서의 포부와 사업계획을 들어보았다.

『시기적으로 美洲지역 동창회를 활성화할 때가 된 것이지요. 지금까지 미국의 각지부 동문들이 親睦위주의 사교단체역할을 주로 해왔다면 총동창회는 여기에서 벗어나 모교의 더 큰 발전과 후배육성을 위해 동문들의 힘을 최대한 결집시킬 필요가 있습니다』라는 말로 창립경위를 설명하는 朴회장은 창립분비위원장으로 在美총동창회 탄생의 산파역이기도 했다.

이미 워싱턴支部 회장으로 있던 90년에 本會 회장단과 趙完圭 前모교총장이 美洲지역 동문들을 순방한 것을 계기로 在美총동창회 창립의 필요성을 절감하게된 동문들이 창립준비위원회를 결성하게 되었고, 특히, 朴회장이 창립준비위원장을 맡게 된데에는 文理大 동기인 趙총장의 각별한 권유가 많이 작용했다고.

『미국은 워낙 큰나라』라고 말하는 朴회장은 따라서 동문들이 항상 함께 모이는 것은 매우 어려운일이므로 총동창회의 역할로 그보다는 『각지역단체가 총동창회를 중심으로 聯合할 수 있는 구심점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비교적 활동이 많은 샌프란시스코, LA, 시카고, 뉴욕, 워싱턴지부에서 각 2명씩 대표를 선정, 10명의 평의원회를 구성해 운영되고 있는 在美총동창회에서는 모교지원사업으로 특히 母校교수들의 연구비지원에 중점을 두겠다고.

〈52년 文理大卒·美 海軍省 근무〉

이를 위해 在美서울대재단(SNUF)을 창립, 金永基동문을 이사장으로 선임했으며, 그 첫사업으로 지난 9월 28일 조영남동문을 초청, LA에서 기금마련을 위한 모금음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가까운 시일내에 꼭 在美동창회관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朴회장은 이 회관이 미국내 동문들을 결집시키는 역할뿐 아니라 미국을 방문하는 동문들에게도 휴식처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또한 동창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비영리단체로서 州정부에는 이미 등록을 마쳤으며, 현재는 연방정부의 등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등 꾸준히 조직정비작업을 하고 있다는 朴회장은 곧 본격적인 동창회 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는냐며 의욕을 보인다.

현재 美해군성 과학기술처 응용연구부에서 프로그램 디렉터로 일하고 있는 朴회장은 미국내 각 대학의 전자공학방면의 기초과학 연구를 기획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또한 George Mason 대학의 조교수로 재직중이기도 하다.

1979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화합물반도체를 개발할 때 UNIDO의 자문으로서 5년간 연구개발에 대한 자문을 하면서 KIST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는 朴회장은 이번 열흘정도의 방문도 KIST 반도체연구실 초청으로 연구기획과 자문을 위해서라고.

부인 玄 주女史와의 사이에 3女를 두고있으며 現국회외교통일위원장인 朴定洙의원과는 형제지간이기도 하다.

미국의 2만여 동문들이 각자의 기반을 가지고 열심히 살고 있다고 말하는 朴회장은 『올한해 동문들이 모교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후세의 교육과 사회공헌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 나가는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말로 새해인사를 대신한다.

〈洪慶華 기자〉

揭示板

同窓會館 冠岳홀

*최지현군·민정숙양(89師大卒)=1월4일 12시30분.
*장영환군(91년社會大卒).
*윤홍덕군(88년自然大卒)·조은정양=1월5일1시.
*백승규군(89년 醫大卒).
*안근영양=1월5일2시30분.
*강요식군(84년 師大卒)·백유경양(90년 自然大卒)=1월9일12시.
*김홍표군(90년 藥大卒).
*김종향양=1월11일1시.
*조영호군(88년 師大卒).
*신현식양=1월11일2시30분.
*조규성군(經營大學院 在學中)·신현식양=1월12일11시30분.
*조종도군(86년人文大卒).
*조도경양=1월12일1시.
*윤의성군(87년 醫大卒).
*박정현양=1월12일2시30분.
*강민복군(91년 醫大卒).
*임현주양=1월15일3시.
*안상욱군(90년人文大卒).
*김미현양=1월18일12시30분.
*오세진군(91년 工大卒).
*홍정주양=1월18일2시.
*한승희군(85년社會大卒).
*문효숙양=1월18일3시30분.
*안세철군(86년經營大卒).
*김영란양=1월19일11시.
*박천기군(人文大在學中).
*조애경양=1월19일12시30분.
*신민철군(89년 工大卒).
*이혜숙양=1월19일2시.
*이금주군(90년獸醫大卒).
*정금란양=1월19일3시30분.
*강정석군(87년社會大卒).
*김정원양=1월23일1시.
*이명재군(89년環境大學院卒)·박귀영양=1월25일12시30분.
*강용호군(90년社會大卒).
*신현주양=1월25일2시.
*이규태군(86년行政大學院卒)·최현경양=1월26일11시.
*양계모군(87년自然大卒).
*이정임양=1월26일2시.
*박재희군(86년 工大卒).
*김은하양=1월26일3시30분.
*남헌모군(84년 師大卒).
*정남금양=1월27일1시30분.

訃音

▲申洞植(57년 文理大卒·前건설부장관)=12월8일 오전1시 서울중앙병원에서 숙환으로 별세. 향년66세.

▲朴應鎭(53년 農大卒·母校교수)=최근 대한수의학회장에 선임됨.

▲崔丙億(53년 文理大卒·本會理事)=12월 19일 대한생명보험㈜ 사장에서 부회장으로 승진.

▲徐元宇(53년 法大卒·母校교수)=12월6일 서울인터콘티넨탈호텔 그랜드볼룸에서 華甲기념 논문집「현대행정과 공법이론」을 봉정받음.

▲李賢宰(53년 商大卒·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12월 5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城표준화대회에서 著書「작업관리의 이론과 실무」로 국무총리상인 文獻賞을 수상.

▲李世鍾(56년 醫大卒·세종신경정신과원장·本會理事)=12월26일 오후7시 영빈관 에메랄드룸에서 著書「신경과 뇌기능 음양론」의 출판기념회를 가짐.

▲金鍾云(57년 文理大卒·母校총장)=최근 京畿高동창회에서 91년도에 가장 이름을 빛낸「91년도의 京畿人」으로 선정됨. 시상식은 1월 10일 同校에서 있을 예정.

▲韓逸燮(57년 文理大卒·서강대교수)=최근 동국대에서 개최된 한국독어독문학회 대한손해보험협회 전무이사에 선임됨.

▲金佑植(60년 工大卒)=12월11일 雙龍건설 전무에서 雙龍엔지니어링 사장으로 승진.

▲文熙和(60년 文理大卒·한국생산성본부회장·本會理事)=최근 생산성향상사례를 담은「손톱이 흔들」이란 제목의 만화책을 생산성배가 민족추진회 이름으로 발간.

▲柳鍾卓(61년 文理大卒)=12월 19일 국회사무행정차장에서 산림청장에 임명됨.

▲申弘(62년 法大卒·서울시립대총장)=최근 고려대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한국노동법학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에 선출됨.

▲安秉直(62년 商大卒·母校교수)=최근 경제사학회 총회에서 회장에 선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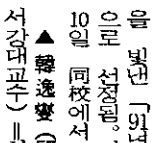
▲李善炯(62년 齒大卒·母校교수)=11월23일 열린 대한치과보철학회 정기총회에서 신임회장에 선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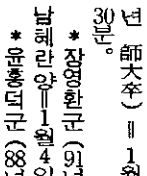
▲李秀哲(68년 音大卒·세바스티안실내악단리더·성신여대교수)=12월16일 오후7시 호암아트홀에서 제4회정기연주회를 개최.

▲李聖雨(68년 醫大卒·조은정형외과)=12월 7일 열린「한국생물생산시설 환경학회」창립총회에서 초대회장에 선임됨.

▲李炳馹(63년 農大卒·母校교수)=12월 30년 師大卒)=1월4일 12시30분.

(78년 音大卒·한국교원대교수)=12월17일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夫君과 함께 「이동우·전미영 이중주의 밤」을 개최.





▲宋仁相 (35년 商大卒·東洋나이론회장·本會理事) ‖12월24일 韓美협회장으로서 국제경제교류를 통해 韓·美 양국간의 우호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정부로부터 수교훈장 광화장을 받음。

▲玄勝鐘 (43년 法大卒·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12월30일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교육정책 자문회의 위원에 위촉됨。

▲李院錫 (47년 法大卒·前한양대교수) ‖최근 동대문구 장안1동 245의2 정연빌딩 201호에 조세제도 전반에 관한 연구등 세법을 주로 연구할「한국조세법전연구소」를 설립하고 초대소장에 취임。(TEL: 2430497~8)

▲盧明植 (49년 文理大卒·한림대교수) ‖「자유주의와 역사」라는 著書로 제32회 한국출판문화상 著作賞 수상。

▲朴泰植 (50년 農大卒·母校명예교수) ‖12월10일 열린 제30회 경기도문화상 시상식에서 母校農大 재직중 2백여편의 論文저술과 경기도 道有林의 장기계획작성등에 기여한 공로로 학술부문에서 문화상을 수상。

▲趙永植 (50년 法大卒·경희대총장·本會理事) ‖최근 수상집「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를 출간。

▲李榮德 (52년 師大卒·대한적십자사부총재·本會理事) ‖12월13일 명지대 전체교수회의 「성남인의 밤」 행사에서 「자랑스런 성남인」 첫 수상자로 선정되어 상을 받음。

▲金圭植 (54년 齒大卒·母校교수) ‖11월19일 롯데호텔에서 華甲논문봉정식을 가짐。

▲李瑞來 (55년 農大卒·이화여대교수) ‖최근 사단법인 한국식품과학회 제13대 회장에 선출됨。

▲金鳳姬 (55년 師大卒·서울한양여고교장) ‖12월26일 서울시교육청강당에서 서울교육상을 수상。

▲崔振學 (55년 醫大卒·경상대교수) ‖11월29일 개최된 한국건강관리협회 대의원총회에서 제14대 회장에 선출됨。

▲安明柱 (56년 工大卒·㈜유공 부사장·本會理事) ‖11월15일 열린 한국유활학회 총회에서 제5대 회장에 피선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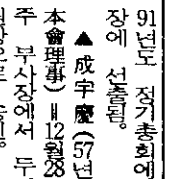
▲姜仁淑 (56년 文理大卒·건국대교수) ‖최근 에세이집「겨울의 해시계」를 펴냄。

▲洪貞植 (56년 師大卒·한국교육개발중학교장회회장·봉은중교장) ‖1월10일 서울교육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교육개혁과 통일대비교육」을 주제로 同會 창립연수회를 개최할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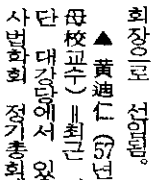
▲金相燦 (56년 商大卒·前고려부자금융사장·本會理事) ‖12월26일 ㈜태흥 회장에 취임。

▲李根熙 (56년 商大卒·한양대교수) ‖12월4일 前한양물산부사장 한국산업은행 이사장에 임명됨。

▲鄭永儀 (59년 文理大卒·前재무부장관·本會理事) ‖12월12일 국가경영전략연구소를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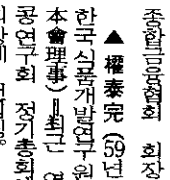


▲姜慶植 (61년 法大卒·前재무부장관·本會理事) ‖11월30일 서초구 방배동에



▲孫京植 (61년 法大卒·本會理事) ‖12월16일 안보협㈜ 사장에서 국화재해상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승진。

▲尹世榮 (61년 法大卒·서울방송사장·本會理事) ‖최근 서울高人·91에 선정된 울고총동창회가 뽑은「서울高



▲申世吉 (61년 商大卒·本會理事) ‖12월16일 삼성물산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

▲許萬貴 (58년 商大卒·새한종합금융사장) ‖12월7일 종합금융협회 회장에 선임됨。

▲朴元根 (58년 工大卒·本會理事) ‖12월24일 금성전선㈜부사장급 대표이사에서 사장급 대표이사로 승진。

▲權泰完 (59년 文理大卒·한국식품개발연구원상임연구원·本會理事) ‖최근 열린 한국콩연구회 정기총회에서 신임회장에 선임됨。

▲金龍國 (59년 文理大卒·前시사영어사 전무·本會理事) ‖11월1일 ㈜I·P·S(International Publications Service)사장에 취임。

動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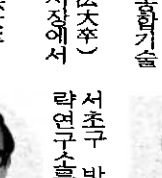
이 欄은 同門들의 동정을 全회원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사진과 함께 記事를 보내 주시면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용 있으시길 바랍니다. 電話로 통보해 주셔도 됩니다. 단, 本報의 편집방침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年3回 이상 게재치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電話 : (702) 2233~5
FAX : (703) 0755

▲金炯孝 (62년 文理大卒·한국정신문화연구원교수) ‖12월7일 列岳기념사업회 제정 제10회 열암학술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상을 받음。

▲黃弼昊 (62년 文理大卒·한국문화철학종교연구원장) ‖

▲鄭淳耆 (63년 工大卒·本會理事) ‖12월26일 선경건설 대표이사부사장에서 사장으로 승진。



▲金國泰 (63년 師大卒·추계예술대학교교수) ‖최근 장편소설「이 병어리여자는 행복한가」를 文德社에서 펴냄。

▲韓亨洙 (64년 工大卒·本會理事) ‖12월1일 삼성코닝사장에서 새한미디어 부회장에 선임됨。

▲吉昇飮 (64년 文理大卒·母校교수) ‖최근 한국정치학회장에 선출됨。

▲金治洙 (64년 文理大卒·이화여대교수) ‖최근 著書「공간의 비평을 위하여」를 문학과 지성사에서 펴냄。

▲李鍾律 (64년 文理大卒·國會議員) ‖11월 2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최근 발간한 수상집「지성과 야만」의 출판기념회를 개최。

▲李眞悟 (64년 醫大卒) ‖12월26일 열린 한국원자력연구소 제57차 정기이사회에서 제3대 원자력병원장에 선임됨。

▲崔德永 (64년 醫大卒·중앙대의료원장·本會理事) ‖최근 고려대 안암의료원에서 열린 91 대한신경외과학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에 선임됨。

▲元佑鉉 (65년 法大卒·고려대교수) ‖12월27일 열린 한국PR협회총회에서 차기 회장에 선출됨。

▲金學俊 (65년 文理大卒) ‖12월19일 대통령정책조사보좌관에서 청와대 대변인에 임명됨。

▲金華榮 (66년 文理大卒·고려대교수) ‖최근 국제펜클럽 한국본부가 주관하는 한국펜문화상 외국문학부문 수상자로 선정됨。

▲車明熹 (68년 美大卒) ‖12월3일부터 9일까지 강

▲金仁鐵 (78년 法大卒) ‖최근 서초구 서초동 1574-14 금석빌딩 201호에「변호사 김인철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고 1월11일 오후2시 개업식을 가질 예정。(TEL: 523-7878)

▲盧圭亨 (77년 社會大卒·㈜리서치앤리서치소장) ‖11월10일부터 14일까지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제24회 국제정치자문가회의 (IAPC)에 참가。「한국에서의 민주화와 과학적 선거전략」이라는 논문을 발표하고 同협회의 아시아지역을 대표하는 이사로 선임됨。

▲陳柱華 (77년 經營大卒) ‖12월26일 삼천리주택 전무에서 사장으로 승진。

▲徐承遠 (70년 商大卒) ‖12월17일 ㈜코오롱건설 전무에서 부사장으로 승진。

▲辛基夏 (70년 司法大學院卒·國會議員·本會理事) ‖12월5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최근 출간한「변혁의 시대」 출판기념회를 개최。

▲李英世 (69년 商大卒) ‖12월6일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에서 부원장에 임명됨。

▲鄭寶源 (69년 美大卒) ‖최근 여류조각가에게만 주는 상인 石洲미술상 수상자로 결정됨。

▲閔範植 (68년 經營大學院卒·서울잠신고등학교장) ‖12월6일 세종문화회관에서 91년도 경향師道賞 상록상을 수상하고 상금을 서울시 교원유자녀 장학금으로 희사。

▲金德煥 (69년 文理大卒) ‖12월 11일 ㈜雙龍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승진。

▲閔淳植 (63년 工大卒·母校교수) ‖최근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포항병원장으로 발령。

年會費 내주신 분

〈10월 10일~12월 14일 까지〉

人名밑 원내 숫자는 卒業年度

理事

◇ 工科大學

▲崔壯宇(48) 홍익대교수
▲孔大植(60) 대한설비공업사장
▲金克中(68) 한국정밀상무
▲文再慶(58) 우림콘크리트회장
▲朴允緖(56) 연암문화재단이사
▲張起柱(58) ㈜경남부사장
▲鄭炳日(54) (前)봉명㈜사장

◇ 農科大學

▲嚴基德(49) ㈜보영사사장
▲姜寅穆(58) 서울농약상무이사
▲金鎭君(76) 김재군농촌지도소
▲池高夏(56) 충남대교수

◇ 文理科大學

▲羅炳旭(49) 경북대교수
▲李承潤(51)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鄭助英(64) 과기총상임부회장

◇ 美術大學

▲金 泰(55) 서울대교수
▲朴世元(50) 덕성여대교수

◇ 法科大學

▲金奉萬(49) (前)일진산업회장
▲金應在(52) 대양도료상사사장
▲金泰鎬(60) 국회의원 변호사
▲鄭沃均(52) 법암화학고문
▲趙東元(58) 해외문화교류협회
▲韓明錫(56) 서울독방관광회장

◇ 師範大學

▲郭漢哲(54) 서울고등학교장
▲金鍾先(60) 이화여대교수
▲金興基(65) 단국대교수
▲朴鵬培(53) 서울교대교수
▲徐內夏(54) 춘천교대교수
▲安秉萬(46) 조일상사대표
▲安柱昇(54) 전남대교수
▲尹明烈(57) 문정중학교장
▲李寅燮(55) 진성여중교장
▲張宗澤(59) 교육부편수관리관
▲張忠植(52) 단국대총장
▲趙鏞樂(56) 변호사

◇ 商科大學

▲高俊漢(59) 고려아연부사장
▲權寧達(55) 금융결재원상무이사
▲徐 幸(64) 코오롱상사전무이사
▲孫吉丞(63) 선경합섬기획실장
▲魚 準(64) 서경통상사장
▲李龍二(69) 우성식품상무이사
▲李昌燮(57) ㈜일화부사장
▲林炳斌(51) 미주상호신용금고이사
▲全昌基(63) 유유산업부사장

◇ 獸醫科大科

▲鄭興寶(61) MBC기자
▲崔善侊(57) 대주산업

◇ 藥學大學

▲文兆鍾(55) 국립보건원과장
▲申英浩(71) 우평양행부장
▲李弼良(57) 홍익제약사장

◇ 醫科大學

▲李桓達(65) 한국베링거인겔하임
▲洪思璜(58) 홍약국

◇ 齒科大學

▲柳榮龜(56) 유영구신경외과
▲洪淳元(56) 홍순원외과

◇ 環境大學院

▲權 完(78) 국방대학원

◇ 行政大學院

▲孫守益(68) 국토개발연구원자문위원
▲李英浩(65) 명지전문대교수
▲丁圭榮(73) 신우엔지니어링회장

◇ 人文大學

▲구형모(88)
▲김민철(87)
▲김철수(88)
▲김형아(88)
▲김민희(89)
▲도면희(83)

◇ 自然大學

▲이명균(88)
▲이주경(88)
▲이천림(81)
▲임영식(89)
▲조소영(89)
▲하봉우(82)
▲황오환(88)
▲강민헌(88)
▲권태수(83)
▲김부열(76)
▲김진환(83)
▲김회섭(82)
▲명백훈(86)
▲박광식(78)
▲박진희(86)
▲백승혁(83)
▲신문유(86)
▲심경우(86)
▲원대연(84)
▲이정기(86)
▲이찬수(88)
▲정재헌(89)
▲최재영(87)
▲한인택(86)
▲권상덕(83)
▲김대유(85)
▲김상규(88)
▲김홍윤(89)
▲노용택(81)
▲문정원(89)
▲박선욱(89)
▲박혜정(85)
▲송세안(79)
▲신종엽(88)
▲양민오(88)
▲윤태정(87)

◇ 工科大學

▲이경환(42)
▲오 현(49)
▲맹광렬(42)
▲추희전(47)
▲강경호(56)
▲강대신(72)
▲강홍우(89)
▲강래룡(69)
▲갖으욱(68)
▲곽명석(89)
▲구경본(72)
▲권봉수(66)
▲권선훈(67)
▲금동정(85)
▲김 철(84)
▲김재성(76)
▲김건차(68)
▲김 홍(69)
▲김기창(63)
▲김경호(67)
▲김대규(69)
▲김답길(65)
▲김명준(65)
▲김병철(66)
▲김상돈(61)
▲김상욱(69)
▲김선우(69)
▲김성욱(67)
▲김영규(64)
▲김영배(57)
▲김영기(50)
▲김용정(56)
▲김용세(63)
▲김원배(59)
▲김원석(68)
▲김원식(60)
▲김유성(54)
▲김재환(65)
▲김종승(59)
▲김종순(58)
▲김진룡(64)
▲김철진(68)
▲김철수(74)
▲김태경(67)
▲김태훈(70)
▲김해전(56)
▲김화성(69)
▲김현주(66)
▲노웅래(69)
▲노태석(73)
▲납상구(70)
▲명차리(66)
▲문인기(61)
▲문명선(55)
▲류홍종(67)
▲박기현(68)
▲박기원(80)
▲박동식(72)
▲박명춘(57)
▲박병희(65)
▲박승준(60)
▲박우상(58)
▲박원홍(64)
▲박지원(82)
▲박종상(69)
▲박창옥(69)
▲박태원(49)
▲백승헌(68)
▲서상혁(68)
▲서형수(67)
▲성기초(55)
▲송삼헌(66)
▲신금진(59)
▲신임섭(79)
▲양석희(66)
▲연덕준(78)
▲오춘석(67)
▲이 성(67)
▲이강원(58)
▲이기준(61)
▲이명재(68)
▲이상국(64)
▲이성주(67)
▲이정무(69)
▲이윤호(71)
▲이재윤(68)
▲이주연(68)
▲이용우(67)
▲이성원(68)
▲이병휘(54)
▲이동훈(69)
▲이근우(76)
▲이강덕(69)
▲이 찬(67)
▲오세기(69)
▲양준모(69)
▲안태길(65)
▲신용우(72)
▲송춘영(71)
▲송낙경(81)
▲설영화(69)
▲서원호(63)
▲백유해(62)
▲배광춘(65)
▲박충규(62)
▲박지원(82)
▲박원홍(64)
▲박신석(69)
▲박승배(68)
▲박동헌(50)
▲박동규(69)
▲박금철(51)
▲박민경(68)
▲민두식(58)
▲김종각(59)
▲김영현(69)
▲김성희(69)
▲김부렬(71)
▲김경원(67)
▲권오균(60)
▲고기철(65)
▲강인석(65)
▲이만우(49)
▲허 종(45)

◇ 農科大學

▲표현구(43)
▲강석원(69)
▲강진욱(67)
▲고주영(69)
▲권오일(58)
▲김광엽(65)
▲김선영(66)
▲김영환(64)
▲노회진(69)
▲박노영(69)
▲박삼렬(39)
▲박영수(72)
▲박용배(62)
▲박재현(53)
▲박훈영(58)
▲손해일(75)
▲안유수(80)
▲유성현(64)
▲윤덕남(84)
▲이근노(58)
▲이석수(69)
▲이종렬(60)
▲이종호(70)
▲임덕규(68)
▲임은수(63)
▲장영주(69)
▲정명철(68)
▲조도현(71)
▲조성환(56)
▲최창우(64)
▲최영규(69)
▲홍용선(72)
▲황용진(61)
▲황자룡(77)
▲황미순(76)
▲홍선표(57)
▲함길주(68)
▲한순옥(87)
▲최석원(85)
▲최욱철(87)
▲최태희(69)
▲하종성(84)
▲한규원(87)
▲허선무(73)
▲홍성민(87)
▲황상일(54)
▲장성태(78)
▲장한기(87)
▲전복현(68)
▲전성찬(84)
▲정규택(84)
▲조봉철(69)
▲조현근(79)
▲채현우(67)
▲주성준(69)
▲조용재(65)
▲정연호(75)
▲전성욱(68)
▲전덕찬(84)
▲장우석(88)
▲장명희(84)
▲김용달(62)
▲김영노(60)
▲김세균(70)
▲김양명(68)
▲김상옥(72)
▲김만기(49)
▲김동현(61)
▲김문일(64)
▲김성수(74)
▲김종흡(84)
▲김용수(70)
▲김상수(74)
▲김상수(74)
▲김상수(74

同窓會 발전은 同門의 會費로부터

새해에도 精誠을 다해 納付 바랍니다

◇ 美術大學

▲김교만 56 ▲김미정 89 ▲김현숙 86 ▲남일우 81 ▲박재호 63 ▲반정원 89 ▲오경환 63 ▲원묘희 63 ▲이성옥 74 ▲이종철 63 ▲이혜인 68 ▲조승환 63 ▲채혜선 86 ▲황민자 67 ▲최지자 67 ▲황영렬 58 ▲최순렬 62 ▲조원영 62 ▲정윤용 71 ▲정구순 55 ▲전정환 71 ▲임종필 58 ▲이정태 56 ▲이상홍 58 ▲이광현 60 ▲윤효윤 63 ▲유홍선 58 ▲원용문 66 ▲신용대 64 ▲송덕희 56 ▲석창일 67 ▲박지동 67 ▲박승영 66 ▲김희준 65 ▲김남년 62 ▲김장년 70

▲김기호 64 ▲김종선 80 ▲김호걸 57 ▲라 현 85 ▲박주영 73 ▲연경자 68 ▲오혜숙 71 ▲이강자 64 ▲이유희 71 ▲이춘옥 69 ▲정정자 64 ▲진진숙 66 ▲최정희 63 ▲최충웅 63 ▲문별희 68 ▲현계순 60 ▲차희원 58 ▲장유경 56 ▲이종석 68 ▲이양길 66 ▲이극찬 60 ▲은영배 61 ▲윤하정 51 ▲유재방 71 ▲안정수 66 ▲신동선 60 ▲손원경 59 ▲박태훈 70 ▲박영걸 52 ▲문선규 48 ▲김화주 56

◇ 法科大學

▲김관수 41 ▲박찬수 40 ▲임복대 39 ▲강욱제 48 ▲김진웅 89 ▲김대웅 88 ▲김경태 63 ▲권오기 57 ▲곽병진 56 ▲김동호 61 ▲김성산 58 ▲김신동 64 ▲김용관 88 ▲김윤수 57 ▲김종혁 64 ▲김두일 58 ▲김창희 86 ▲김태준 61 ▲김현채 61 ▲노대섭 70 ▲문종수 63 ▲문해성 83

▲김태욱 87 ▲오도수 43 ▲강 탁 64 ▲김 경 88 ▲구병수 68 ▲김기성 64 ▲김도언 83 ▲고의영 81 ▲김섭록 58 ▲김진화 71 ▲김돈방 59 ▲김학균 86 ▲김홍규 57 ▲문용선 80 ▲문춘섭 54 ▲민예순 61

◇ 師範大學

▲김광진 41 ▲김대하 77 ▲구자현 57 ▲김길선 57 ▲김선식 62 ▲김영기 56 ▲김이종 65 ▲김종욱 58 ▲김찬균 58 ▲김정일 68 ▲김류경 89 ▲김선중 70 ▲김목환 61 ▲김국태 63 ▲강휘국 69 ▲홍동은 41 ▲정현수 46 ▲이춘근 41 ▲송위섭 67 ▲사공일 64 ▲배신한 62 ▲서재진 66 ▲신반식 65 ▲안혜자 57 ▲김우한 60 ▲김경호 73 ▲김독원 73 ▲김광연 62 ▲김선영 57 ▲김영건 66 ▲김용성 62 ▲김재진 58 ▲김태웅 66 ▲김상기 70 ▲박종달 63 ▲배신한 62 ▲송위섭 67 ▲안인수 60 ▲안홍지 65 ▲우영하 58 ▲유종백 57 ▲이명기 63 ▲이정규 48 ▲이철수 59

▲김이종 65 ▲김영기 56 ▲김선식 62 ▲김대하 77 ▲구자현 57 ▲강길선 57 ▲정환영 45 ▲이현독 39 ▲윤순희 42 ▲김정필 40 ▲민청옥 41 ▲조의선 40 ▲임석준 44 ▲양두옥 38 ▲서상현 44 ▲김광진 41 ▲김종욱 58 ▲김정일 68 ▲김류경 89 ▲김선중 70 ▲김목환 61 ▲김국태 63 ▲강휘국 69 ▲홍동은 41 ▲정현수 46 ▲이춘근 41 ▲안채봉 40 ▲김종욱 39 ▲한병목 31 ▲조금호 44 ▲유한순 36 ▲신의범 41 ▲남규욱 43 ▲김정일 89 ▲김정일 89 ▲김정일 89

終講시간의 숙제

權 寧 珉
〈71년 文理大卒 · 모교 人文大 교수〉

나는 한 학기의 강의를 끝내는 종강 시간에 언제나 학생들에게 숙제를 한 가지 내준다. 강의가 끝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내준 숙제를 다시 확인할 수는 없다. 학생들도 나의 숙제를 정리하여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미 강의가 끝나고 학기말 시험을 치르게 되니, 학생들은 전혀 부담없는 숙제를 하나 받아가는 셈이다. 나도 물론 그 숙제를 강요하지는 않는다. 관심을 가진 사람은 꼭 한번 그 숙제를 해보라고 당부할 뿐이다.

내가 종강 시간에 학생들에게 내주는 숙제를 학생들이 귀찮아 하는 경우는 별로 본적이 없다. 학생들이 내 숙제를 얼마나 열심히 할 것인지 알 도리가 없지만, 내가 숙제를 내고 그 숙제를 내주는 이유를 설명하고 종강을 선언하면 학생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외치며 박수를 친다. 학생들이 한 학기를 마치는 홀가분한 기분으로 박수치고 소리를 지르리라는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나는 그것을 나의 마지막 숙제에 대한 호의로 생각하곤 한다.

이번 크리스마스 때 나는 여러 학생들로부터 카드를 받았다. 그 가운데 나를 가장 기쁘게 만든 것은 바로 그 나의 숙제를 반드시 실천해 보겠다는 사연을 함께 적어 넣은 세 통의 카드이다. 많은 수강 학생들 가운데 그 학생의 이름과 얼굴을 도무지 기억해 낼 수가 없지만, 아마 그 학생도 종강 시간에 내 숙제에 환호하고 박수를 쳤을 것이 틀림없다.

작년에도 비슷한 내용의 카드를 몇 통 받았다. 그 가운데 하나는 십년전에 내 강의를 들은 학생이 보낸 것이었다. 물론 나는 그 카드의 주인공을 전혀 기억할 수가 없었다. 그 카드속에는 십년전에 내가 내는 종강 시간의 숙제를 꼭 십년간 계속 실천하고 있다는 사연이 적혀 있었다.

나는 나의 숙제가 십년이 넘도록 계속 유효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혼자 공연히 가슴이 들뜬 기분이었다

내가 학생들에게 내주는 종강 시간의 숙제는 특별히 시간을 많이 써야 하는 일이 아니다. 힘이 드는 것도 아니다. 경제적인 부담도 별로 없다. 나의 숙제를 위해서는 그저 한달에 한번씩 약간의 수고로움만 감수하면 된다. 취미나 관심을 구태여 따질 필요도 없다. 학창시절의 숙제로 생각하고 그냥 계속해 보면 스스로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일이다. 물론 강제적인 구속력은 없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당부한다.

『여러분, 시집 한권의 값은 단돈 이삼천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드나드는 다방의 커피값이 천원이 넘는

다는 사실을 나는 압니다. 두세번만 다방에 들르지 말고 그 돈을 아껴 한달에 한권의 시집을 사십시오. 읽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냥 방구석에 던져 놓아도 그것으로 족합니다. 일년 동안 이 숙제를 계속하면 열두권의 시집을 갖게 됩니다. 대학 사년을 계속하면 오십권에 가까운 시집을 모으게 될 것입니다. 십년을 계속해서 한달에 한권의 시집을 산다면, 백권이 넘는 시집을 여러분의 서가에 꽂아둘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가장 찬란한 시대에 가장 빛나는 인간의 정신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먼 훗날에 다시 만나 이 마지막 숙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합시다.』

새 農法을 創案하자

名譽敎授 칼럼

李 殷 雄
〈前 모교 農大學長〉

在職중 통일벼 開發 일익
쌀 自給自足 큰 보람

사람이 오래 사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라 그가 人類社會에 얼마나 공헌했느냐가 그의 척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40년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그것도 과도기의 대학이었고 우여곡절이 많았던 때 大過없이 講壇생활을 마치고 이제 名譽敎授가 되어 오늘에 있게 되었음을 다시 없는 光榮이라 생각하고 이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하고자 감히 원고 청탁을 거절하지 않고 펜을 들었다. 나를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신 恩師 趙伯顯선생님, 故池泳麟선생님, 항상 지도편달해 주신 선배님들, 그리고 동료들의 友誼, 즉 同門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싶은 마음에 서였다.

나는 재직중 農學科에서 作物學, 주로 水稻作을 담당하여 강의와 이에 관한 연구를 해왔다. 재직초기 10여년은 실험농장에 책상을 두었고, 또 10여년은 실험실과 실험농장에서 살았으며 나머지 10년간은 교무담당학장보, 농학도서관장 그리고 學長 補職의 일두를 수행하면서 강의와 학생지도 및 연구결과의 종합정리에 바쁜 시간을 보냈다.

재직기간동에는 항상 학교에 일찍 나갔으며 늦게 돌아왔다. 그래서 연구실을 지킨 시간을 따져보면 아마도 이제까지는 나보다 많은 분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결코 자랑할만 한 것이 못된다.

기실 대학에 부임한지 얼마되지 않아 6·25動亂으로 모든 시설이 파괴되고 파경에 처하게 된 경제속에서 특히 식량부족이 몰고 온 主穀인 쌀의 증산과 이의 자급자족의 요청은 당시 국가지상과제였다. 이것은 내가 전공하고 있는 과제이기도 했다. 미곡증산은 시급한 문제였으며 이에 관한 연구는 서둘러야만 했다. 그래서 이 분야의 關係行政界 및 硏究界, 즉 농수산부 농촌진흥청 산하 연구기관및 대학에 있는 선배 동료 후배 모두가 한 명이 되어 열심히 뛰었다.

보람되게 71년 多收性인 「통일벼」가 육성 개발되어 보급되기에 이르렀고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여 77년 쌀 4천2백만섬이라는 사상 최대수확량을 올리게 되어 쌀 자급자족의 숙원을 성취하였다. 물론 이 일에 참여한 한사람으로 기쁘기 한이 없다. 그런데 이제 국가경제가 성장하여 식생활이 변화되면서 쌀의 소비가 줄고 과다한 도입량과 더불어 재고량이 쌓이게 되었고 「통일형 쌀」이 아닌 일반형인 高價米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쌀의 잉여를 걱정하는 이들이 있게 되었다. 이것은 내가 전공하고 있는 과제이기도 했다. 미곡증산은 시급한 문제였으며 이에 관한 연구는 서둘러야만 했다. 그래서 이 분야의 關係行政界 및 硏究界, 즉 농수산부 농촌진흥청 산하 연구기관및 대학에 있는 선배 동료 후배 모두가 한 명이 되어 열심히 뛰었다. 보람되게 71년 多收性인 「통일벼」가 육성 개발되어 보급되기에 이르렀고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여 77년 쌀 4천2백만섬이라는 사상 최대수확량을 올리게 되어 쌀 자급자족의 숙원을 성취하였다. 물론 이 일에 참여한 한사람으로 기쁘기 한이 없다. 그런데 이제 국가경제가 성장하여 식생활이 변화되면서 쌀의 소비가 줄고 과다한 도입량과 더불어 재고량이 쌓이게 되었고 「통일형 쌀」이 아닌 일반형인 高價米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쌀의 잉여를 걱정하는 이들이 있게 되었다. 이것은 내가 전공하고 있는 과제이기도 했다. 미곡증산은 시급한 문제였으며 이에 관한 연구는 서둘러야만 했다. 그래서 이 분야의 關係行政界 및 硏究界, 즉 농수산부 농촌진흥청 산하 연구기관및 대학에 있는 선배 동료 후배 모두가 한 명이 되어 열심히 뛰었다. 보람되게 71년 多收性인 「통일벼」가 육성 개발되어 보급되기에 이르렀고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여 77년 쌀 4천2백만섬이라는 사상 최대수확량을 올리게 되어 쌀 자급자족의 숙원을 성취하였다. 물론 이 일에 참여한 한사람으로 기쁘기 한이 없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히 하고 싶으며, 또 후진에게 기대하려는것을 부언하고자 한다.

즉 農業이란 지구상에 인류가 존재하는한 건전하게 유지·지속될 것인바 이에 합당한 연구와 교육 그리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恩師로부터 그렇게 배웠으며 또 그렇게 믿고 가르쳐 왔다. 지금도 그것은 변함이 없다. 벼논이 길을 맬때다. 발, 다리에 흙을 묻인채 논에서 나오면 선생님은 이렇게 걱정하셨다. 「너희들과 같이 그 논바닥의 아깝고 좋은 흙을 묻여내면 몇백년 후에는 어떻게 되겠는가 라고. 이것이 진실된 농업의 철학인 것이다.

우리는 하도 급했던 나머지 지난 40여년은 農業眞隨를 생각할 여지도 없이 그저 더많은 식량을 얻기 위한 수단과 방법의 시험과 연구에 여념이 없었으며 그래서 농업은 더 많은 비료를, 또 과다한 농약을 사용해온 것이 사실이며 또한 田畓의 인류가 존재하는한 농업생산체계가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제문제를 고려할 때 농업이 버티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방식의 農法을 창안해 내자는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農法이 우리 앞에 우연히 그리고 돌연히 나타나게 될리 만무하다. 현명한 인간은 더 많은 지혜를 찾고자 끊임없이 노력한다고 한다. 부디 後進 農學徒들이여.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온 힘을 기울여 쉬지말고 꾸준히 노력하여 보람있는 업적을 남겨 다음 세대에 물려줄 유산으로 조물주가 우리에게 부여해준 국토를 오염되지 않은 것으로 물려주고 그들이 영구히 번영되게 살기를 다같이 기원하는 바이다.

다시 말하면 현행의 농업생산체계가 환경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이에 대한 연구를 게을리 하게 된때에 정년퇴임하게 되었으니 쌀의 증산시책에 참여하여 일해온 나로서는 기쁨을 확장하기 위하여 자연을 마구 파헤치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로 자연환경이 훼손파괴되었고, 땅과 물은 지하수까지 오염되고 이들이 병들게 되고 이 병든 땅과 물은 먹이를 병들게 하고 여기에서 생산된 식품의 안전성에 대하여 논란이 있게 되었으며 우리 건강을 위협하게 되었다는 소리가 높게 되었다.

이미 현명한 민족들은 농업의 영구성과 농업이 그들의 건강과 민족의 발전에 깊은 관계가 있음을 간파하여 국토보전을 위한 농업의 합리적개발에 안간 힘을 쏟고 있다.

이제 우리도 먹고 입고 또 사는데 어려움이 없게 된 이 마당에서는 서둘러서 농업에 대한 연구와 농업경영을 농업철학에 입각한 농업 本意 차원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올해는 원숭이 해

단합·슬기·양보의 美德 배우자

頭腦회전 빠르고 母性愛 강해

속담에 잔재주가 많은 원숭이도 나무위에서 떨어질때가 있다는 말이 있다. 이는 지극히 평범한 말씨로 내포되어 있는 뜻은 대단한 함축성을 지닌다.

사람도 일생동안 땅위를 걷고 생활하면서 아차 실수로 실족하여 골절및 뇌진탕을 일으켜 죽는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원숭이도 낳아서 죽을때까지 樹上生活만 하다가 약삭빨른 잔재주를 경박하게 피우다가 떨어지면 그만 단 한번의 실수로 황천길로 하직하고 만다는 삶의 진리같은 말로써 매사에 침착하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넘어가라는 뜻에서 나온말이다.

12간지의 띠풀이를 보면 쥐·소에서 시작하여 개·돼지로 끝나는 열두가지의 동물들이 번갈아 1년씩 지배하고 그해에 태어난 사람은 동물띠와 연관하여 운명을 지니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 발상은 현대인들이 볼때 비과학적이고 유치한 迷信이 아닐수 없다.

十干과 十二支의 과학적 근거를 보면 十干은 인류사회가 어디서나 공통으로 발전시켜온 10進에서 비롯된 것으로 고대의 印度, 이집트에서 인류의 기본적인 記數法을 사람의 열손가락을 이용한 10進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12進法은 고대 「바빌로니아」에서 크게 발달했던 天文學지식에 근거를 두고 1년은 몇달이고 해의 1주기(365일 남짓)와 달의 주기(29일남짓)를 12회로한 것이 十二支의 근원이다.

원숭이띠해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①1980년:光州민주화운동 발생 최규하대통령 하야와 전두환11대대통령 취임

②1968년:국민교육헌장 선포 미국 흑인지도자 킹목사암살

③1956년:申翼熙유세도중 이리에서 급서·폴란드 쿠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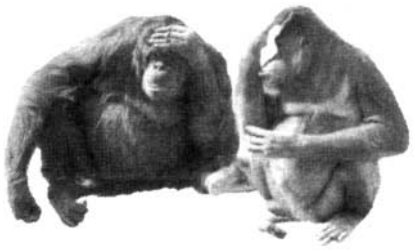
④1944년:총독원법에 의한 全面徵用실시(일제하)·프랑스「연합군」「노르만디」상륙성공등 국내외적으로 전쟁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별다른 인명과 재산피해없이 원숭이가 나무위에서 재주부리듯이 아슬아슬하게 잘 넘어갔다. 원숭이의 탄생은 제3기「팔레오세」中紀에 食蟲目에서 분기되었다고 한다.

지구상에 현존하는 원숭이는 10科 50속 1백86종류가 유럽·호주·북아메리카를 제외하고는 신·구 양세계의 적도를 中心으로 넓게 분포 서식하고 있다.

원숭이는 동물계에서 가장 진화된 체형과 두뇌회전이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체구는 남아프리카에서 서식하는 갈라고는 1백mg밖에 안나가나 2백kg이 넘는 고릴라도 있다.

원숭이의 대부분은 樹上生活을 하며 유인원에 속하는 오랑우탄 침팬지 고릴라등은 地上生活과 樹上생활을 겸하고 있으며 유인원들의 잠자리는 지상 3~5m의 나무가지위에 침상을 만든후 잠을 잔다.

원숭이들은 채식주의자로 美食家 이며 과일열매·식물의 씨와 종자·나무잎·뿌리및 순을 따먹고 곤충·파충류·소·동물까지 골고루 잡아먹고 살아간다. 가족단위의 군거집단생활을 하며 이중 리더격인 수컷의 통솔력은 대단하여 단체행동시 준엄한 명령에 순종치 않을 때에는 냉엄한 벌칙을 가해 모든 무리가 리더의 명령에 절대 복종토록 유도하며 살아간다.



◇ 원숭이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진리를 깨달아, 지구상에서 멸종되지 않고 유유히 살아오고 있다.

리더 命令에 절대 服從
가족단위 群居集團생활

그러나 불시에 맹수나 적이 눈앞에 나타나면 리더는 생명을 초월한 위협적인 공격과 투쟁을 하여 온가족을 안전지대로 피신시킨후 승산이 없다고 계산이 되면 비겁하고 치사하리만큼 야비하게 체면에 아랑곳않고 도피행각을 시도한다.

「클라우드 빌레」가 「인간의 진화」란 저서에서 유인원은 사람을 닮았다고는 했지만 다른점을 생태학적으로 살펴보면 코청(콧구멍 사이의막)이 뚜렷하고 긴 콧등을 갖고 있다.

▲윗입술은 구강점막을 내보일정도이다.

▲외부로 돌출한 뺨이 있다.

▲발가락은 한線上에 고르게 발달되어 있다.

▲자기 생명을 유지하는 어느 한동물보다 비열하다. 이는 다른 영장류보다 腦容積量이 많아 생각해낼수 있는 잠재능력의 지능지수를 갖고 매사에 신중한 행동을 할줄하는 동물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원숭이들은 종족번식과 자기새끼에 대한 父母性愛가 탁동물들이 추종하지 못할만큼 철두철미하며 헌신적인 봉사와 희생정신에 입각한 어미의 보호속에 자라지만 새끼를 교육시키는 과정은 냉철하며 하나부터 열까지 몸소 어미가 시범을 보여주고난후 새끼에게 시켜보는 산교육을 시키는 동물이다. 한가족이 오순도순 놀때에도 수컷은 전망이 좋은 나무가지위에 올라가 눈을 지긋이 감고 철두철미한 경비경계를 해준다.

원숭이들은 자기들의 허약한 체격조건을 알고있기 때문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진리를 새끼때부터 피부로 느끼며 살아왔기 때문에 가족이나 동료간에 매사 양보의 미덕과 협동심을 스스로 키우며 살아가는 까닭에 지구상에서 멸종되지 않고 유유히 살아오고 있는 것이다.

만물의 영장이라 일컫는 우리도 壬申年을 맞아 원숭이들의 생활상처럼 단합된 힘과 슬기로 양보의 미덕속에 온국민이 한마음으로 응집되어 참의 지혜를 풀어 나간다면 작금의 경제난국도 형통하게 풀어질 것이다.

金 正 萬
〈58년 獸醫大卒·
서울大公園 動物部長〉

21세기의 科學과 生活

金 明 子
〈66년 文理大卒·
淑大 理科大學長〉

50년대 후반 C.P. Snow경이 쓰기 시작한 「두 문화」(Two Cultures:「New Starteman」, 1959년)라는 말은 요즈음 자연과학과 비자연계 분야 사이의 간극을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자주 회자되고 있다. 두 분야사이의 몰이해는 그 자신 과학자로서 작가의 삶을 살았기에 절실히 느꼈던 감회였겠는데, 실상 과학기술의 주요사건들은 문학영역인 SF속에서 신통하게 예측되고 있었던 것이 여럿 있다. 원자력 에너지의 이용만 해도 그러하다. 제2차세계대전중 Manhattan 계획에 의해 미국이 원자탄을 개발해내기 훨씬 전, 1914년에 이미 영국의 H.G.Wells(1866-1946)는 그의 픽션「해방된 세계」(The World Set Free)에서 인류가 언젠가는 원자력 에너지의 사용에 의해 에너지의 궁핍으로부터 해방되리라 예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사에서의 원자력 에너지의 이용은 전쟁무기의 개발이 먼저 있은 뒤 비로소 평화적 이용에 눈을돌렸으려니와, 현재의 원자력 기술수준도 핵분열 반응에 수반되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상태이다. 방사성 폐기물 저장 등의 문제는 부대비용을 갈수록 높이고 있으며, 순도높은 원료 또한 언젠가는 고갈되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다. 그러므로 다음 세기에 인간이 해결하게 될 과학기술의 주요과제는 핵융합 반응의 실용화에 의해 오염없는 무제한의 에너지를 얻는 일이 될 것이다. 그날이 오기까지 현 산업구조를 지탱해낼 적절한 에너지 대책이 마련돼야 할것인데, 차츰 공룡화(?)하는 이들 고가의 거대과학을 선도하기에 우리의 수준이 역부족이라는 아쉬움이 다시 한번 새삼스러워진다.

◇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들을 미래에는 과학기술이 척척 해낼 것이다.

核融合反應의 실용화로
汚染없는 에너지 無制限 얻어

21세기에 과학기술에 의해 우리 생활이 어떻게 얼마나 달라질 것인가? 통신위성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영국의 A.C.Clark 는 인간의 단기예측은 실제보다 원동하 낙관적인 반면, 장기예측은 실제를 크게 밑도는 비관적인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가령 「탈것」의 속도에 대한 기술상의 실제변화를 보면, 말로부터 시작되어 미미한 진보를 보이던 것이 1947년 비행기 속도가 음속을 넘어선 것을 턱으로 그 속도는 가파르게 치솟은 파격적인 경향곡선을 그렸다. 이러한 경향곡선에 의한 예측은 최초의 인공위성이 발사될 해, 그리고 최초로 인간이 달에 발을 디딜 해를 놀랄만큼 정확하게 알아맞출 수 있었다.

오늘날의 과학기술은 인간이 마음먹기에 따라 공상을 현실로 바꿀 수 있는 위력을 지니게 되었다. 생명과학의 연구도 계속 첨단을 달릴 것이다.

1958년 Robert Heinlein의 SF인 「멧살라의 아이들」은 장수 가계끼리의 결혼으로 장수하는 사람들을 사회를 그려냈다. 그러나, 21세기의 과학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최대의 행복인「노화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주제를 결코 놓치지 않을 것이고, 그 결과 당장 몇년 안에 우리의 가정생활을 파고들 변화도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예컨대 잠동차의 경우, 새로운 밧테리 체계에 의한 전기동차, 그리고 메탄올 등 가솔린 대체연료 자동차가 우리나라에서도 1995년까지 개발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1991년 과학기술처신종합대책과 기술처 보고자료).

退行性 질환의 療法 개발
老化로 부터 解放 될지도

그리고 1995년 통신위성 무궁화호의 발사와 더불어 HD(High Definition) TV가 개발되는 날, 나처럼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선명하고 생생한 화면앞을 떠나지 못해 하루가 24시간밖에 안되는 것을 아쉬워할 것 같다.

텔레비젼 전화는 그보다 앞서 1994년에 실용화되어 상대방의 얼굴을 빠안히 보며 통화하게 되며, 많은 가정에 컴퓨터 단말기와 고속 팩시밀리가 설치되어 출근하지 않고도 집에서 거뜬히 사무를 보게 된다. 나아가서 회의도 오며가며 시간 보내지 않고 실물크기의 화상회의가 가능해진다. 그리고 교도의 과학기술은 대중교통수단의 혁신에도 활용되어 교통문제를 해소시켜 줄것이며, 환경복지기술의 개발은 대도시 한복판에서도 심호흡을 할 수 있고 수돗물을 마음놓고 마실 수 있는 날을 되돌려 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대로 끌고 나간다고 할 때의 청사진일 것이다.

新刊

■새 지평선에 서서
-金在淳著(52년 商大卒·샘터사명예이사장·本會부회장)

국회의장을 지낸 저자가 여러 일간지 칼럼난과 「샘터」 "隨題寸感" 난을 통해 게재했던 정치수상과 에세이들을 모아 엮은 文集。70년대 이후의 격변하는 시대상황을 걱정하고 진단한 1백여편의 글들은 정치인의 입장에서라기 보다는 책의 부제가 말하듯 평범한 「한 샘터인의 나라생각」으로 그려져 혼돈의 세태에서 바른 전망과 지침의 지평을 제시하고 있다。〈320쪽·4천5백원·샘터刊〉

■도깨비 날개를 달다
-金烈圭著(54년 文理大卒·서강대敎授)

도깨비는 한국인 인성에 관한 마지막 물음이라는 전제하에 「낯익은 괴물」이라고 칭함으로써 도깨비와 우리 한국인 사이에 비밀스럽게 열려있는 통로를 열어 보이고 있다。1부에서는 도깨비 이야기의 구조와 유형을 분석하고, 2부에서는 도깨비와 관련된 민담을 모아 그간 한국인의 심리, 무속등을 고찰해온 저자 특유의 시각이 돋보인다。〈382쪽·6천원·춘추사刊〉

■대학진학을 뜻하는 젊은이에게
-金元銖著(58년 商大卒·모교敎授)

대학에 갓들어와 대학인으로서 첫발을 내딛는 「경영학원론」의 수강생들에게 저자가 강의의 서두로 해주던 이야기를 간추리고 다듬어 엮어냈다。부제가 「경영학의 권유」이지만 경영학을 포함하는 학문이 무엇이며, 왜 그것이 연구되고 배워지고 그것을 배우면 어떻게 될것인가하는 지적 생활의 의의를 젊은이들에 일깨워주고있다。〈121쪽·2천5백원·서울대학교출판부刊〉

■老人硏究
-徐炳淑著(59년 家政大卒·한양대敎授·가정대동창회장)

2천년대에 이르러서 60세 이상의 노인인구 비율이 16%를 상회하게 됨으로써 선진국에서 발생한 노인문제가 한국에서도 발생한다는 예측을 전제로 현재 노인이건 미래에 노인이 될 사람이건간에 중단없이 계속되는 속도감이 팽배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잠깐 손을 놓고 자신을 돌아보게끔 하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연구서。특히 노인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전무한 현실에서 가정학자의 시각으로 규명한 체계서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210쪽·5천5백원·교문사刊〉

■포스트모던 시대에서의 영미문학의 이해
-李廷鎬著(65년 文理大卒·모교敎授)

「다원화된 비평이론의 비판적 수용과 적용」이라는 부제를 달고, 단순한 포스트모더니즘의 소개서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우리가 이제 세계인으로서 영미문학의 텍스트를 읽음에 있어 세계의 보편사상의 일부가 된 동양의 전통을 넉넉한 마음으로 자신들의 글읽는 행위에 끼워 넣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592쪽·1만3천원·서울대학교출판부刊〉

■韓國의 鐘
-廉永夏著(67년 大學院卒·母校명예교수)

20여년간 山寺와 박물관등지를 돌면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鐘의 역사, 한국종의 출현, 구성요소, 재료, 주조기술을 해설하고 한국종의 소리를 음향학적 측면에서 고찰한 원로학자의 연구논저。은은한 여운과 조각미의 측면에서 세계 최우수금속공예품으로 인정받고 있는 국내 및 일본 소재 한국종 3백5구를 신라시대부터 고려·조선시대까지 각 시대별로 저자의 탁본조사와 함께 총괄분석한 대작이다。〈656쪽·3만5천원·서울대학교출판부刊〉

■論語-인간관계의 철학1
-尹在根著(68년 文理大卒·한양대敎授)

「철학우화」라는 새로운 장르로 우리에게 老莊의 道충 莊子를 이야기꾼으로 쉽게 만나게 해준 저자가 동양사상의 또 다른 큰줄기인 論語를 새롭게 풀어쓴 철학서。「군자는 가슴에 꽃을 달지 않는다」라는 제목처럼 현대인의 자기과시욕을 경계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처세의도를 제시하고 있다。論語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學而」 「爲政」등 6편을 다루었다。〈312쪽·4천5백원·둥지刊〉

■나의 사랑 나의 大學
-金東銑著(70년 文理大卒·시사저널 편집부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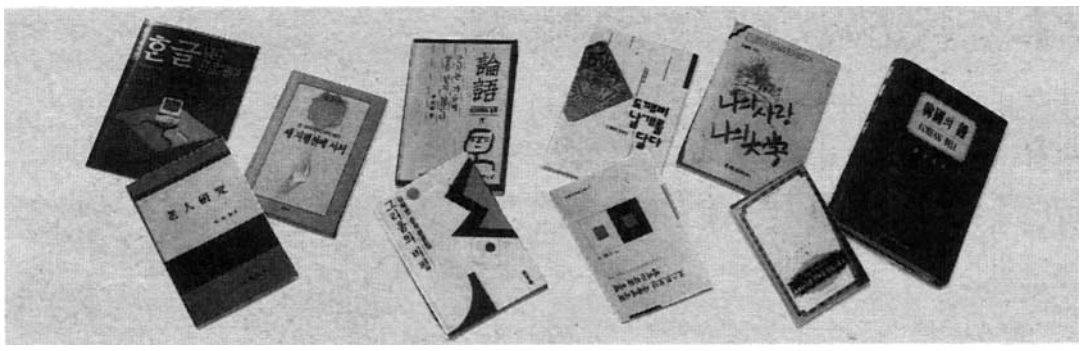
모교의 동숭동시절, 학생들이 가졌던 고민과 방황, 낭만과 우정을 회상하고 역대 總長의 행적을 통해 모교의 역사를 조명한 산문모음。전체 3장으로 구성, 대학생활의 편린과 저자가 졸업후 대학신문사 편집부장시절 게재했던 시사칼럼, 역대 서울대생들의 면면이 재치있는 필체로 그려져 있다。〈320쪽·4천2백원·동아출판사刊〉

■한글 워드프로세서
-柳錫仁著(77년 工大卒·모교敎授)

한글 워드프로세서 「한글」은 탁월한 기능을 지니면서도 사용이 쉬워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이 프로그램을 처음 사용하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능한한 쉽게 엮어 필자의 설명을 따라가다 보면 기초에서 고급기능까지 익힐 수 있다。한편 각 기능마다 실제 화면을 수록해 이해를 돕고 있다。〈216쪽·5천원·동아출판사刊〉

■그리움의 비평
-金泰賢著(81년 人文大卒·순천향대敎授)

혼탁한 현실 때문에 이땅에서 쉴새없이 일어난 갈등과 싸움이 필요없는 맑고 조용한 세상에 대한 그리움을 기저로한 문학평론집。최근에 생산된 시와 소설 그리고 평론의 세계를 진보문학적인 시각에서 해부함으로써 우리가 자칫 현학적인 포장의 이면을 간과하는 누를 범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339쪽·6천5백원·민음사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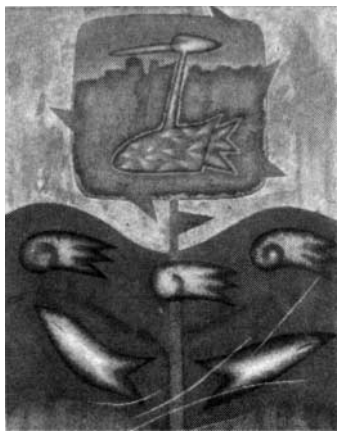


展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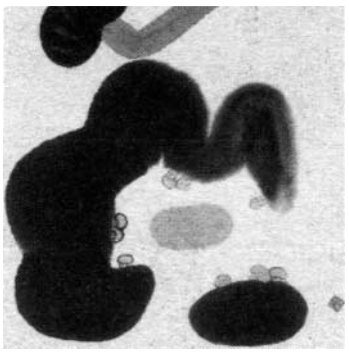
■朴城完 (82년 美大卒·경희大강사)

그의 작품에 흔히 보여지는 오리, 새 그리고 나무등 자연물의 형태를 통해 감지할 수 있는 것은 동심이다。색과 색의 변화로운 결합을 통해 빈틈없이 간결한 화면을 만들어 나가는 섬세하고 차분한 색감을 통해 우리는 생떽쥐베리의 어린왕자와 같은 심성을 떠올리게 된다。

점묘적인 텍스추어와 단순화된 동물의 형상 그리고 사물들은 보는이로 하여금 그들 나름대로 상상력을 지니고 이야기를 꾸밀 수 있는 동시적 감성을 갖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언어로서의 예술을 느낀다。



오리 II 36.7×46.3cm Mixed Media 1991



金 炳 宗
(81년 美大卒·모교敎授)

雅 歌

金 南 祚
(51년 師大卒·숙명여대敎授)

하늘도 제일 높은 하늘에까지
너를 부르는
한 목소리 뿐이다

선물로 받은
햇빛이라 여기며
비라 여기며
나날이 더운 손 잡아 주며 산다
사랑을 가진 나는

진작엔 몰랐던
눈물과 진실
너로 해 생긴 근심도 소중해라
사랑을 가진 나는

바다도 제일 깊은 바다에까지
너를 부르는
한 목소리 뿐이다

선물로 받은
빈 자리라 여기며
외롭다 여기며
약손 얻어 가슴 쓸어 내리듯 산다
사랑을 가진 나는

아아 내 눈이 본
가장 놀라운 빛으로
몸이 빛나고
영혼이 빛나는 너를
죽도록의 내가 보고싶은 마음도
훗세상에 심어
뿌리 깊은 연분의 나무 될
기도에 바치고 나면

따의 제일 먼 따끝에까지
너를 부르는
한 목소리 뿐이다

母校소식

合格者 3백점이상 84%

學科別 합격선 16~31점 높아져

3백 넘고도 不合格 2천5백명

전체首席 李學虎군 3백36점

92학년도 모교 합격자 중 학력고사 3백점이상 고득점자가 지난해의 9백34명에서 3천9백24명으로 늘어나 전체 모집인원 4천6백85명 가운데 8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합격선도 인문계는 23~31점, 자연계는 16~27점 가량 치솟았다.

또 예·체능계를 일부 학과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과합격선이 3백10~3백20점 사이로 학력고사 3백점 이상을 받고도 탈락한 수험생이 2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교가 구랍 29일 발표한 합격자 사정결과에 따르면 인문계의 경우 법대가 지난해 2백93점에서 3백19점으로, 경제학과가 2백86점에서 3백17점으로 각각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치학과는 3백15점, 영문학과는 3백13점의 합격선을 보인것으로 전해졌다.

자연계 합격선은 물리학과가 지난해 2백95점에서 3백18점으로, 의예과가 2백91점에서 3백18점으로 올라갔고, 공대 전기전자제어공학群의 합격선은 3백14점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自然大 물리학과를 지원, 학력고사 3백36점을 얻어 전체수석을 차지한 李學虎군(18·서울 養正高3)은 『과수석정도는 기대했으나 시험이 너무 쉽게 출제돼 전체수석은 생각지도 못했다』고 기쁨을 감추지 못한후 『과학선진국진입의 일익을 담당하는 물리학자가 되는게 꿈』이라고 밝혔다. 또 法大 법학과를 지원, 3백32점을 얻어 인문계수석과 여자전체수석을 함께 차지한 임윤조양(16·京畿女高)은 『철저한 계획하에 규칙적인 생활을 한것이 좋은 성과를 낳았다』고 소감을 말하고 『세계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적 지위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싶다』고 야무진 포부를 밝혔다.

◇ 전체수석을 차지한 李學虎군(右에서 두번째) 이 가족들에 둘러싸여 기뻐하고 있다.

大學院 2백69명 증원

92학년도 이공계 첨단과학 분야와 기타 분야의 대학원 석·박사과정에 총 2백69명이 증원되었다. 증원내역은 석사과정에 있어 이공계 첨단과학 분야 1백16명, 기타 분야 50명, 박사과정은 이공계 첨단과학 분야 64명, 기타 분야 39명이다.

發展基金 조성에 새바람

三逸會計法人 매칭 펀드로 千萬원 출연

모교 발전기금 조성에 새바람이 일고 있다.

徐泰植(63년 商大卒·삼일회계법인 회장) 동문은 회계법인에 재직하는 동문들의 모교발전기금 출연을 독려하기 위해 1인당 1백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인이 출연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발전기금으로 출연키로 모교와 약정을 맺었다.

徐동문은 이에따라 지난 12월2일 同법인 재직동문 73명이 출연한 5백27만원과 법인부담 5백27만원 Matching Fund 27만원 합계 1천54만원을 金鍾云총장에게 전달했다. 同 법인은 90년에도 서울대발전기금의 업무전산화를 위해 1천5백만원 상당액의 S/W를 개발하여 기부한바 있다.

韓進그룹 5백40만원
漢拏그룹 3백80만원
보람은행 5백만원

지난 연말에 한진그룹과 한라그룹 재직 동문들이 각각 5백42만원과 3백89만원의 발전기금을 기탁했다.

한진그룹은 대한한공 한진해운 한진 한일개발 한진중공업 동양화재 한불종금 한진투자 평해광업등 9개 회사 재직동문 2백6명이, 한라그룹은 만도기계 한라건설 한라시멘트 한라자원 한라창업투자 한라해운 한라중공업 한라공조등 8개회사 재직동문 45명이 성금을 모은 것이다.

한편 보람은행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李柄善(57년 商大卒)동문도 지난 11월26일 金鍾云총장을 예방하고 발전기금으로 5백만원을 전달했다.

法學硏、창립 30주년

「한국의 법학교육…」 주제 심포지엄

법학연구소(소장 : 권영성 교수)는 연구소 창립 3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의 법학교육 반성과 개혁」주제의 심포지엄을 지난 11월22일 교수회관에서 열었다.

법대 양승규 교수(법학연구소 연구부장)가 법학교육의 목표와 교수방법론〉, 안경환 교수(국제비교법연구실장)가 〈대학원 법학교육의 현황과 개선방향〉, 최송화 교수(연구교육부장)가 〈법과대학의 학과체계와 교과과정의 재검토〉에 관해 각각 주제발표를 맡고 이강혁 외국어대총장, 유후정 이화여대 총장, 신홍 서울시립대 총장, 박남규 창원대 총장 및 15개 대학의 법대학장 등이 사회와 토론을 맡았다. 3분야의 주제발표가 끝난 다음에는 박병호 법대학장의 사회로 종합토론이 있었다.

서울大 새해 計劃

총장 金鍾云

〈57년 文理大卒·英文學〉

제2跳躍 위해 캠퍼스 拡張

教養교육 革新·電算教育 확산

壬申의 새해가 밝았다. 한 해의 설계는 元旦에 꾸미는 것이라 하였다. 취임한 후의 첫 원단을 맞았으니 새해를 겨눈 계획의 일단을 밝혀볼직도 하다.

새해를 향한 계획이라고하지만 그것은 모두가 서울대학교를 세계 랭킹대오에 끼어드는 명문 대학으로 만들고 싶다는 나의 素朴한 염원에 근거하는 것이다. 나는 그 뛰기적 발전을 「第二의 도약」이라고 이름붙인바 있다.

이를 위한 계획은 필연적으로 다양해야 할 것이나 여기서는 두드러진 것 몇가지만 적어보기로 한다. 그 첫째는 過密化로 몸살을 앓고 있는 관악 캠퍼스를 확장하는 일이다. 원하는 바는 소위 「第二 캠퍼스」이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는 차선의 방도라도 마련해야 한다. 아니고서는 우리가 바라는 대학 및 대학원에서의 교육과 연구의 질을 보장하는 활동을 수행하기가 매우 어렵다.

둘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교양교육의 혁신이다. 전통적인 대학의 사명인 교육과 연구에 더하여 연구를 통한 사회봉사라는 추가 사명을 오늘의 대학이 가지게 된 것은 피치 못할 발전추세여서 그결과 學問的 탐구못지않게 專門性이 강한 활동이 강조되고 있지만, 그 와중에서 자칫 우리가 망각하기나 등한시하기 쉬운 고등교양교육을 혁신하자는 것이 나의 희망이다.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은 어느 한 분야의 전문인이고 기능인이어야 하지만 동시에 지도자적 덕성을 구유해야 하는데 이를 얻도록 돕는 길의 하나가 고등교양교육이다.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를 정보사회시대라고 한다.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데에 필수적인 도구적 지식은 電算지식이다. 행정도 도서관도 모두 전산화해야 할뿐 아니라 이 새로운 言語의 교육은 전교생을 대상으로 확산시켜야 한다. 실로 컴퓨터 언어의 습득은 이제 새시대의 교양의 일부가 된 것이다. 이것의 실현이 나의 세번째의 계획이다. 세가지 모두가 새해에 거침없는 出帆을 하게되길 간절히 바란다.

徐泰植(63년 商大卒·삼일회계법인 회장) 동문